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노 혁
연구자 : 길 은 배



한국청소년개발원

머 리 말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로 198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지나친 사치와 낭비적인 생활을 이 유로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경제적인 풍요는 개인과 가정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반대로 상당한 역기능의 작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사회는 경제적 풍요로 인해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환경을 상당히 많이 유발하여 부정적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유해환경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강한 자극과 흡인력을 가지면서 청소년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은 유해환경이 갖는 선정성과 퇴폐성에 쉽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환경에 따른 청소년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이 소비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유해한 산업의 주요한 종사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문제의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유해환경은 날로 증가하는 성인들의 무분별한 쾌락 문화와 맞물려 은밀하게 확산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강력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단속하고 제재를 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민간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을 통한 시민운동을 병행할 때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 또는 제거하도록 민간부문에서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에도 몇몇 단체들이 인력 및 예산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을 충실히 전개하고 있지만 ‘유익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의 현재가 사회의 미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유해환경 제거 및 유익환경 조성에는 좀 더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된 시민사회에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민참여운동으로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제언 아래,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법 등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방향으로 그 활동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 등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활동을 준비하는 많은 조직과 지역인사들에게 작은 참고서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노혁 연구위원과 길은배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준 인천교육대학교의 정문성 교수와 대구 YWCA, 전주 YWCA, 광주 YMCA, 마산 YMCA, 춘천 YWCA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자문에 기꺼이 도움을 준 공주교육대학교의 구정화 교수, 한국청소년마을의 우옥환 이사장, 서울YWCA 강남청소년회관의 정하희 관장과 본원의 이광호 연구위원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1998년 12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최 충 옥

목 차

국문초록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의 방법	7
II.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9
1.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9
2. 청소년유해환경의 확산 배경과 접촉 실태	14
1)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확산 배경	15
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	27
3.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논의	46
1) 긴장이론	46
2) 문화일탈이론	49
3) 사회학습이론	52
4) 통제이론	56
5) 결 론	58
III.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활동 실태와 문제점 ...	64
1. 운영조직 및 재정지원 현황	64
1) 운영 조직	65
2) 재정지원 현황	70
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실태	72
1) 감시 및 고발 활동	72
2) 교육 및 홍보 활동	73

3) 유익환경 조성 활동	74
3. 민간단체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문제점	75
1) 인원, 재정 등 구조적인 문제	75
2)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참여의식 부족	76
3) 관련 법률의 모순성 및 복잡성	77
4) 활동 범위의 애매성 및 관련행정관서의 협조 부족	78
IV.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활성화 방안	80
1.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80
1) 법적 장치의 마련	81
2) 제도적 장치의 마련	83
2. 조직과 기능의 활성화 방안	87
1) 구조의 조정	88
2) 기능의 활성화 방안	92
3. 활동 전략의 조직화	95
1) 지역별 민간감시단 활동의 연계망 구축	96
2)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감시전략 수립	97
3) 청소년유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포지티브 전략	99
4) 적극적인 청소년 운동으로의 전환	101
4. 자발적인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환	104
V. 요약 및 정책 제언	108
1. 요약	108
2. 정책 제언	118
참고문헌	122
영문초록	127

<부록 1> 유해유형별 감시단 활동방안	129
<부록 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지침 기초(안).....	130
<부록 3>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실태	134

표 및 그림 목차

〈표 2-1〉 청소년에게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	28
〈표 2-2〉 청소년이 생각하는 유해환경	29
〈표 2-3〉 강남구 청소년 유해물품구입, 업소출입 현황	31
〈표 2-4〉 청소년의 유해환경 출입실태	32
〈표 2-5〉 대중매체에 대한 유해성 인지도	35
〈표 2-6〉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매체	36
〈표 3-1〉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자원봉사 자격, 근무조건, 시간, 담당분야, 인원 현황	67
〈표 3-2〉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재정지원 현황 (’98년기준)	71
〈그림 3-1〉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조직	66
〈그림 3-2〉 마산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조직	69
〈그림 3-3〉 전주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조직	70
〈그림 4-1〉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조직	91
〈그림 4-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기본 운영체계	91

국 문 초 록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청소년유해환경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접촉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심각한 청소년유해환경이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집행 노력 못지않게 민간감시활동의 활성화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감시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감시단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민간감시단이 소규모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의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민간감시단의 주요한 활동주체이다.

둘째, 민간감시단의 사업은 주로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 고발업무, 실태조사, 캠페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감시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감시단 모니터 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둘째, 활동 대상인 유해환경 인식과 관련하여 유해매체물 신청 경로의 복잡성, 청소년관련 법규의 상호 모순으로 인한 단속과 지도 규정의 혼란,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전담 직원의 법규 이해에 대한 체계적 교육 미비 등 유해환경 인식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셋째, 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민간감시단 활동 범위의 애매성, 관련 행정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에 기초하여 볼 때, 민간감시단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시민참여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민간감시단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구조 및 기능의 조정, 활동의 활성화 방

안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민간감시단 운영 및 활동 관련 세부사항의 지방 조례화
- ② 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선별적 사법권 부여
- ③ 청소년 관련 법률의 상충 내용 정비

둘째,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① 유해환경의 유형별 대책 수립과 기능의 지방 분산
- ② 민간감시단 운영기구의 독립과 중앙 운영협의회 설치
- ③ 고발·처리 절차의 다원화 및 유해매체물 신청경로의 단순화
- ④ 민간감시단 운영 요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회 부여
- ⑤ 권위 있는 기관에서의 민간감시단원증 발급

셋째, 다음과 같이 조직이 조정되어야 한다.

- ① 자격을 갖춘 5명 내외의 유급 전담직원 확보
- ② 지역 주민 중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방안 모색

넷째, 다음과 같은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 ① 유해환경 감시를 통한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와 통합의 사회적 기능 회복
- ② 유해환경 감시 운동을 범시민적 지역사회운동으로 확장
- ③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인적, 물적, 행정적, 재정적 부문 등의 각종 사회적 자원을 활용
- ④ 단기적으로 비행예방환경을,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유익환경을 조성
- ⑤ 청소년 생활환경과 욕구에 대한 성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
- ⑥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비판하는 능력과 긍정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

다섯째, 민간감시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전략 조직화를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지역별 민간감시단 활동의 연계망 구축

②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감시전략 수립

③ 청소년 유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포지티브(positive) 전략 수립

④ 적극적인 청소년 운동으로의 전환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은 유해환경 유형별로 지역 특화와 함께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지역사회 시민운동의 전형적인 모델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반상회와 부녀회 조직 등 공공 또는 사적인 지역주민회의 체를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의 주요 조직과 전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유익환경 조성 기반을 축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을 접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다양한 통로로 마련하는 한편 실천의 의지를 보일 때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제거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과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법과 제도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시민적 자각을 확산시켜 범국민적 차원에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전자의 경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 관련 업무가 행정적으로 일원화되어 업무가 체계화됨으로써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제거하려는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적인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후자는 1990년대 들어서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본질,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 규명 노력이 시작되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어머니 방법대의 활동’ 등 지역사회내의 조직적인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이광호, 1992: 134). 또한 1993년도 한국청소년학회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 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고발을 통한 현장조사, 시정 권고 등 고발처리 활동을 주로 수행해 왔고, 1994년부터는 감시 모니터 운영과 유해환경 실태조사, 시민 캠페인과 여론조성의 기능이 보다 능동적으로 보완된 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시민운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4년 서울 YWCA에 개설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지킴이 전화’를 통한 상설 고발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주부, 교사 등 13개 자원봉사 모니터 모임을 구성하여 청소년·학부모의 입장에서 영상·인쇄·통신매체에 대한 청소년 유해요인 감시모니터 활동과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활동이 바탕이 되어 1995년에 서울 및 5개 광역시 등에 위치한 6개 민간시민단체에 본격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활동을 펼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청소년백서, 1997: 448-449).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시민단체의 유해환경 감시활동이다.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적인 규제만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을 단속하고 개선하기에는 국가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큰데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규제 위주의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간감시활동은 유해환경을 자발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하는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운동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사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은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 못지 않게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은밀한 유해환경 조성을 차단하려는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은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 기준과 방법 등을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철저히 단속과 감시를 해야 하는 한편,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접촉기회를 차단하고,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도외시하도록 민간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유해환경을 감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유해업소와 매체 그리고 약물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속적이고 다양하며 포괄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제거하기 위한 민간단체 중심의 시민운동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직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을 위한 시민운동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있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감시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의 필요성과 함께 유해환경 민간감시를 위한 시민운동의 분위기는 조성되어 가고 있다.

사실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이 철저한 시민운동 정신에 바탕으로 두어야 하지만 우리와 같이 지역사회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시민운동의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한 이론과 실천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많은 한계를 갖는다. 물론 현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운동이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고유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정부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유해환경 감시활동이 정부의 정책 의지와 행정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구색맞추기'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결과는 민간 시민운동의 자발성과 자기 혁신성 그리고 탄력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활동의 특성상 시민단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책대상이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당사자인 청소년 스스로 운동의 행위자가 될 수 없기에 사회 및 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민간감시 활동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하위전달체계를 갖지 못한 정부 역할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 또는 기존 시민조직을 통한 민간감시단 활동과 순수 민간 재원과 지역사회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간감시활동

으로 구분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들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감시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간감시단활동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조례청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감시단이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하며, 자생적인 민간감시단 활동의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직된 감시단은 지역사회 운동체로서 지역의 유해환경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역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자발적인 감시조직체의 구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사회적’이라는 의미의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역동성이 빚어낸 사회환경은 인간생활에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계량화할 수 있는 물질적 측면까지 직·간접적으로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회환경은 인간에게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물론 사회환경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은 인간의 준거 기준에 따른 것이고,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의 유해성 기준은 성인들의 잣대에 의해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게 논란의 소지를 빚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유해환경을 정의하고 사회의 부정적 환경으로 적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까닭은 사회적 경험의 총량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청소년의 성장에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 요인을 내포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과 제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라는 측면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기회와 삶을 제한하고 해롭게 하는 요인이라는데 더욱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즉,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필요조건을 만족시

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은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부정적 요소의 제거라는 네가티브(negative) 전략으로서 필요조건이다. 이 전략 아래서 시민운동은 활동 내용에 있어 많은 제한을 갖겠지만, 이러한 제한이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 활동의 중요성과 조직적이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긍정적 전략보다 훨씬 많은 이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개선과 제거라는 목표는 하나의 목표로서 그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 부정적 요소의 특성상 끊임없는 압력과 지속적이고 폭넓은 청소년유해환경의 해악에 대한 경고와 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에 대한 노력만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과 유해환경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비판적인 시민운동은 청소년 보호 육성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제도, 관행, 기관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유해환경이나 매체의 제거, 촌지문화 축출 등 엄청나게 많은 운동 대상들이 우리 사회에 산재하여 있고, 시급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이런 운동은 그 필요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참여자 동원이 쉽고, 전략만 잘 세워지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음란매체, 유흥업소의 변태영업, 담배광고나 자판기 등 청소년들의 비행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조장하는 것들은 몇몇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치면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단체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유해환경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있는 시민들의 불매운동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손봉호, 1992: 11).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시민운동의 기반을 둔 다양한 활성화 방안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감시단은 구조와 역할과 기능 그리고 민간감시단 상호간의 연계방안 및 활동의 법적·제도

적 근거와 장치 등에 대한 새로운 조명작업이 필요하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보조와 지원을 받는 민간감시단을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으로, 청소년과 시민단체의 자발적 사업 또는 조직으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을 ‘민간주도형 감시단’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의 바람직한 활동조직과 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민간주도형 민간감시단’의 활동방안 및 역할과 방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향후 바람직한 민간감시단활동은 순수민간주도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은 공공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을 받는 민간감시단의 활성화를 통해 순수한 시민운동을 통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으로 발전되는 단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감시단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감시단활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 제거하기 위한 기초적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

선행 연구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과 청소년들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유해환경의 확산배경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물과 전국의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에서 조

사한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한 특별한 접촉 실태 조사 등은 없다. 이러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중심으로 민간감시단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이 결과들은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관계 및 민간감시단의 개입 전략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현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의 각 지방단체별 민간감시활동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민간감시단에서 발행된 보고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터뷰 자료 등이 정리·분석된다.

3)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방향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활성화시켜 청소년유해환경 제거 또는 감소의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자료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향후 역할과 방향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3. 연구의 방법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청소년유해환경의

확산배경과 접촉실태에 관한 전문가의 논의를 수록하고,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활동현황에 대해 현지 전문가와 실무자를 면접하였으며, 각 지역의 민간감시단 활동에 대해 구조화된 형식을 통해 활동실태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민간감시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하였다.

현지 전문가와 실무자의 현장활동에 대한 면접조사는 1997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과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차에 걸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이론적인 논의부문을 도출하였으며, 각 지역별 활동실태에 대해 실무자의 활동보고를 재구조화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자문은 1998년 9월 21일 5명의 자문진을 통해 도출하였다.

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체계적 연구는 많은 청소년관련 학자, 사회단체 및 연구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변의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익환경의 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 및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이나 범주 등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나 체계적인 이론적 연구결과물이 아직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학문적 관심의 소홀이나 결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유해환경이 지니고 있는 유해성과 구조의 모호성,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시도가 필요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유해환경과 그 유해성은 환경의 분류 범주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청소년의 연령과 정신적 발달의 정도와 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도종수 외, 1990: 43). 그러므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경험이나 시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먼저 유해환경을 인간과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의 입장에서 유해환경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심리적 조건에 따라 똑같은 환경에 대

해 다르게 반응하기도 한다. 환경의 개념을 분류학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식화한 것은 르윈(Lewin; 1936: 729)이었다. 그의 행동공식 $B = f(P \cdot E)$ 에서 P는 사람(person)을 뜻하고, E는 환경(environment)을 뜻하며 ‘·’은 상호작용을 뜻한다(황정규, 1987). 즉 인간의 행동양식은 개인이 지닌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환경을 가정, 동료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하나의 단위로 보았을 때, 그 환경단위가 청소년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이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큰 공헌을 한 것은 머레이(Murray; 1938)이다. 그는 환경의 방향적 경향을 환경의 압력(press of environment)이라고 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알파압력’으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하는 ‘실제 현존하는 압력’과, 다른 하나는 ‘베타압력’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현상에 대한 각 ‘개인 자신의 해석’이 기초가 된 압력이다. 머레이는 주로 ‘베타압력’의 개념적 도식과 측정방법에 창의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반응에 따라 환경의 질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은 대부분의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환경을 유해환경이라고 한다. 이 유해환경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환경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은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매우 크며 연령이 점점 증가할수록 그 영향력은 감소한다(정원식 외, 1977). 그러므로 성인들은 그러한 유해환경의 영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유해환경의 접촉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들은 그런 자제력과 통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신의 성장과정에서 받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의 확산과 접촉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유해환경은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물이나 평론물에

서 논의 되어온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재천(1989)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중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향을 주시하여 그 대상으로 잡지, 방송, 영화, 만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중한(1989) 역시 청소년 매체물의 불건전성을 유해환경의 유해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유수현(1989)은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대표적인 유해환경으로서 첫째,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둘째, 학교주변 향락업소, 셋째, 유해 저질 영상매체, 넷째, 유해 저질 출판물을 범주로 하고 있다(도종수 외, 1990: 43).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청소년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요소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이 그 유해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유해환경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에 관한 연구들을 해왔고, 이를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인격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환경 요인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즉 영향과 반응관계의 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강대근, 1984; 한준상, 1991). 따라서 유해환경의 존재형태는 하나의 물질, 매체, 장소 혹은 기회나 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청소년유해환경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은 청소년의 건전성장의 저해, 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침해, 비행의 조장과 범죄성의 유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비행의 조장에 관해서는 유해환경과 비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비행과 유해환경이 대단히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유해경, 1986; 김준호:

1989). 즉 유해환경은 직접적인 비행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거나 비행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혹은 동료집단을 매개로 해서 비행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친화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해환경은 사회적 존재상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도종수 외, 1990: 55-56).

- ① 유해시설 및 장소: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비행 우려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로서의 유해환경.
- ② 유해물품: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③ 유해행동: 성인들의 관여나 간섭형태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유발하는 각종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④ 유해한 정보환경: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해.

또한 체육청소년부(체육청소년부, 1990: 20)의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사회심리적 유해환경으로 청소년이 사회화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유해환경이다. 여기에는 가정불화, 비행성 또래집단, 성인들의 유해행동 등이 있다. 둘째는 사회제도적 유해환경으로 사회제도의 변화가 청소년들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유해환경이다. 여기에는 가족의 해체현상, 입시 제도의 병리적 현상, 문화 갈등 등 문화 해체 현상 등이 있다. 셋째는 물리적 유해환경으로 빈곤가정, 과밀학급, 유해한 영상 매체 등이 있다.

결국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모든 환경을 의미한다. 청소년유해환경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청소년비행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임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해환경의 개념과 유해성의 요건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도종수 외, 1990: 46-47).

첫째,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즉 유해환경의 판단 기준은 청소년의 연령이나 정신발달의 정도 및 사회적·문화적 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롤러스케이트장, 전자오락실, 디스코장 등은 청소년들에게 문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되지만 시설 그 자체만으로는 유해환경이나 장소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며, TV, 만화, 비디오,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와 정보매체들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청소년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개념적 상대성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는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의 이중성을 떨 수 있다.

둘째, 유해환경이란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개념이다. 유해환경은 개체와 환경간의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반응과 영향관계로 규정되지 않고, 청소년과 그 환경간의 지속적인 반응과 영향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여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개체와 환경의 반응과 영향 관계의 과정 그 자체에서 작용하고 의미를 갖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해'의 요소는 청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작용될 수 있다. 단지 유해환경의 개체에 대한 영향의 정도와 개체의 환경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연령이나 신체적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이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일정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허용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근거는 이러한 개체의 반응정도의 차이 때문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해환경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의 해석과 많은 변인에 의하여 영향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분류 및 범주 등과 같은 비교적 정확하게 논의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유해환경의 개념을 좁혀보는 작업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의 확산 배경과 접촉 실태

청소년유해환경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나라의 대중문화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소년 문화도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대중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대중문화에 다소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물론 청소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중문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문화가 유해환경의 확산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대중문화의 발달과 함께 유해환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요인이 대중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발달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확산 배경을 살펴본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 주도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해방 후 대중매체의 발달과정이 곧 대중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확산된 향락문화가 청소년유해환경을 급속하게 확산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관계와 향락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해시설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확산 배경

(1) 문화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mass culture의 번역어이다. 다소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mass culture보다 가치중립적인 popular culture가 개념적 편향성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mass culture가 오늘날의 대중문화를 지칭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강현두, 1989). 그것은 대중문화의 탄생 역사에서 비롯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mass culture는 원래 독일어의 masse와 kulture의 복합어이다. masse는 유럽사회에서 비귀족적이고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을 가르키는 말이며 오늘날에는 중류층이나 하류층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서구사회에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산업화가 시작되자 서구사회의 계층구조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세력이 약화된 구시대의 귀족들은 계급적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의 진전은 도시에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게 하였다. 농촌사회를 떠나 도시로 몰려온 수많은 이주민들은 과거 농촌에서 즐겼던 민속적인 서민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도시적 문화와 오락을 즐기게 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고급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던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자신들을 후원하던 귀족계급이 몰락하자 새로운 문화후원자를 찾게 되었고, 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한 중산층 역시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이들에게서 찾게 되어 중산층을 위한 예술과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중문화의 출발이었다(강현두, 1989). 그러므로 대중문화는 고급문화와 서민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유한 개념이다. 대중문화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고급문화와 서민문화만이 존재하였고, 대중문화는 대중이라는 계급의 출현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공간적·시간적 거리를 단축시켜 준 교통과 통신의 발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문화의 형성을 가능케 한 산업화, 도시문화를 형성하여 대중문화 형성의 기초를 마련한 도

시화,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구비케 한 교육기회의 확대, 경제적 풍요속에서 문화적 욕구를 증가시킨 생활수준의 향상 등 많은 영역에서의 사회구조적 조건이 필요하였다(정갑영, 1994).

대중문화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조건속에 구시대의 고급문화와 서민문화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고급문화는 구시대 귀족계급의 문화였고, 서민문화는 하위계층의 문화로 단절된 계층구조와 함께 따로 존재해 왔던 문화였다. 맥도널드(MacDonald: 1959)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해 대중문화는 고급문화를 채굴하여 자기의 몸을 키워 나가면서 단절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주의와 대중교육이 구상류층의 고급문화 독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다. 또한 서민문화도 대중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문화와는 단절되어 왔다. 서민문화는 고급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이고 토착적으로 서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가 아니며 위로부터 강요된 문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대중문화가 산업화의 기반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새롭게 각성된 대중의 문화적 수요가 이윤 높은 상품시장이 되는 것을 알았으며 기술의 진보는 이 상품시장을 위해 서적, 잡지, 미술, 음악, 영상 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기업인이 고용한 기술자에 의해 가공된 것이며, 대중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대중문화라는 상품을 살 것인지 사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에 군림하는 기업주들은 그들의 이윤획득을 위해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서구의 전통적인 단절적, 계급적 문화였던 고급문화와 서민문화가 소멸의 길을 걸으면서 민주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계급구조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대중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발달

되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광범한 보편성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가지는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정문성 외, 1994)

첫째로는 획일성과 대량성이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 주도되며, 대중매체는 똑같은 문화상품을 대량생산해서 동시에 공급하여 소비시키는 문화산업이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의 획일성과 대량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진다. 이 획일성과 대량성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고급문화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이용되면 장점이 되지만,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저급문화를 확산하는 등 나쁘게 이용되면 많은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다양화이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획일화된 속에서도 점점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획일화된 대중문화의 내용에 식상된 대중들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려는 대중매체의 노력들에서 나타난다. 대중잡지나 신문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 내용도 점점 다양하게 편집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케이블 텔레비전은 수많은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패션이나 취미활동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도 전체적인 획일적 대중문화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셋째로는 상업성이다. 대중매체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운영되므로 이윤추구를 위한 광고 수입에 의존한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의 요구가 단순히 광고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광고 그 자체도 대중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대중문화의 내용이 상업성에 의해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비록 대중매체의 공익성이 의무적으로 강조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업성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대중문화 발달과정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러한 대중문화는 하나의 문화산업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

다. 대중문화는 자본주의 체계내에서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문화상품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주체에 의해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 분배, 소비되는 문화이다. 동시에 대중문화는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대중문화는 수용자들에게 쾌락적이고 비현실적인 도피적 문화 내용물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들을 탈정치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창출하는 소극적 기능에서부터, 그 문화내용 속에 지배계급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은폐적으로 심는 적극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지배계급의 대중매체 통제 내지는 장악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김해식, 1987).

대중문화는 생산주체의 입장에서는 이윤의 확보를 위해 문화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생산주체는 자신이 만든 문화상품 수용자의 극대화와 안정화의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바로 광고수입의 확대, 즉 이윤의 증대로 이어진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상품인 이상 예술적인 작품성보다는 이윤추구의 상업성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설령 문화상품 생산자가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도 생산주체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주나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적 요구의 속박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때로는 예술적 가치와 상업성이 동시에 달성된 문화상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중문화의 생산주체는 고가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청률이나 구독율을 높여야 하고, 시청률이나 구독율을 높이기 위해 폭력이나 선정적인 내용들을 담은 대중문화상품들을 무분별하게 공급하게 된다. 이에 대중은 순간적인 본능적 욕구의 충족, 호기심 때문에 대중문화상품을 수용하게 되고, 은연중에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내용들을 통해 왜곡된 가치관이나 정서를 가지게 되며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된다. 대중문화상품이 고도의 예술성과 상업성이 동시에 갖추어지지 않는 한 문화

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중문화상품의 예술성과 상업성의 성취는 단지 대중문화상품의 생산주체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질의 대중문화상품이 사라지고 대중문화상품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중문화 소비주체의 역량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의 한 단면이다. 대중문화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비례하여 물질적 상품에도 고급상품과 저급상품이 있듯이 대중문화상품에도 질적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대중문화상품의 질이 소비주체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판로를 잃어 가는 저질의 대중문화상품이 아직 문화역량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음성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으로 볼 때 또 하나의 관심은 문화산업이라는 경제적 속성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문화적 종속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대중문화를 순수한 문화로 본다면 국제화, 개방화되는 추세에서 문화적 교류는 인류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이 문화적 교류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일방적 문화전파가 되고, 그 이면에 경제적 종속관계의 심화가 노정된다면 이는 문화교류가 아니고 문화침투가 될 것이다. 흔히 문화제국주의론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관점은 70년대 이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질서 재편성에 따른 제3세계 국가들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문화제국주의론이 문화현상을 경제 및 정치적 차원으로만 설명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이상, 선진국과 후진국 또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제적 종속이 문화적 종속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중문화상품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화제국주의론의 관점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 한국의 대중문화와 청소년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주문화(mainculture)와 사회구성원 중의 일부분만 가지는 하위문화(subculture)로 나눌 수 있다. 주문화는 보편적인 혹은 국가적인 문화로서 한 사회의 기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하위문화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하위집단에서 다른 집단과는 구분이 될 만큼 특이하게 나타나는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민족이나 인종, 성별, 연령집단, 종교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화는 연령집단에 따른 분류의 개념으로 청소년집단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로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윤리의식과 규범, 태도, 언어, 복장, 행동, 인간관계, 오락 및 여가생활 등 그들의 내면적인 의식구조 뿐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양식까지를 포함한 문화를 말한다(박성희, 1992). 그러나 청소년문화는 주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문화인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대중문화현상이 한국사회에 나타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보고 있다(강현두, 1987; 이강수, 1980). 1960년대는 대중문화의 기반인 산업화, 도시화, 탈문맹, 대중매체 보급 등의 현상이 새로운 기술도입에 의하여 촉진되었으며 1975년도를 고비로 하여 그와 같은 현상이 가속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우선 대중적 주간지로서 주간한국이 1964년, 주간중앙·주간조선·선데이 서울 등이 1968년, 주간여성·주간경향이 1969년에 창간되었다. 이러한 주간지들은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전국적으로 개통되고 대중적 여가와 대중적 풍요가 나타나는 1970년대에 본격적인 주간지 문화를 형성케 하였다. 주로 대중적 주간지들은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과 같이 주로 무료함을 달래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전파매체도 1960년대에 상업라디오 중앙국들과 텔레비전 중앙국들이 개국되었다. 서울의

문화 라디오가 1961년, 동아 라디오가 1963년, 동양 라디오가 1964년 개국하였다. 텔레비전의 경우는 KBS가 1961년 개국하였고, TBC가 1964년에, MBC가 1969년에 개국하였다. 그러나 1969년까지 전국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은 약 25만대에 불과하였고, 1975년대에 이르러서야 100만대를 돌파하여 본격적인 대중문화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급격한 보급과 함께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들 대중매체가 주도하게 되었고 특히 전파매체 문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강현두, 1987).

또한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산업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입각한 산업사회 구조에로의 사회변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은, 이러한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토대가 없이 위로부터의 성급하게 채택한 결과로 사회규범의 혼란과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였다.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던 전통적 가치체계마저 산업화로 말미암아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아직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미숙한 자본주의 정신은 천민적 물욕주의, 천민적 개인주의, 성윤리의 파괴, 도덕적 문란과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해 형성된 대중문화형성의 제조조건들의 충족으로 급격히 발달된 대중문화의 내용은 이러한 무규범상태를 반영하여 유희지향적, 쾌락지향적, 소비지향적인 것으로 채워졌고, 이는 천민적 대중문화 형성을 더욱 조장하였다(이강수, 1980).

이처럼 군사정권의 문화의식 부재와 정체성이 없는 대중문화의 상업성은 문화적 통합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상업성이 있는 외래문화의 무분별 수용을 촉진시키고 대중의 하향적 평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생산적 문화이기보다는 소비적 문화이며, 대중이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문화라기보다는 그것 이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접촉하고 수용하는 문화이며, 대중의 취향을 현상동결시키고 오히려 저속화, 타락화시키는 문화이다. 최근의 일본텔레비전의 베끼기 경쟁이나 10대들을 겨냥한 유치한 오락 프로그램들, 그리고 의외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교양음악프로그램들, 또한 일

본대중문화개방을 앞두고 이에 대해 느끼는 공포심은 문화적 정체성과 통합성에 대해 자신 잃은 한국대중문화의 딜레마를 반영해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릴(Real: 1977)은 현대 대중문화를 대중매체문화(mass mediated culture)로 규정지었다. 한국사회도 대중매체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였고, 청소년들도 어릴 때부터 대중매체와 접촉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영향속에서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한국대중문화의 특성이 상업성과 외래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청소년문화도 외래성과 상업성으로 인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의 외래성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공백기에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중문화는 해방후 곧 바로 한국에 상륙했으며, 일본의 대중문화는 특히 1965년 한·일회담 이후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물결이 한꺼번에 한국사회에 급격히 밀려들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에 형성되었던 대중문화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복제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본화된 일본의 대중문화는 더욱 쉽게 한국에 받아들여 졌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유사성, 그리고 과거 일제치하의 경험에 의한 문화적 친근감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정문성, 1992b).

이러한 문화적 대중화는 급격한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부작용을 수반한 채 추진되었기 때문에 서구의 대중문화보다 더욱 거칠고 익지못한 상태로 형성되어 왔다(강현두, 1991).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서구의 대중문화를 취사선택하여 정제하고 조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으나 그러한 자생적 문화를 창출하기에는 사회·환경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문화의 외래성을 부추킨 첨병의 역할은 한국의 대중매체, 특히 전파매체가 담당하였다.

한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그 기술의 도입에서부터 외래성을 탈피하기 어려웠고, 내용도 미국이나 일본의 것을 흉내내었다. 또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방송체제는 다양한 방송문화의 자체적 성장을 저해하였고, 대중의 일방적 문화수용을 강요하여 대중은 무력하게 바보상자 앞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청소년은 귀에 리시버를 끼고 전통음악이나 국내가요보다는 외국의 팝송을 더 많이 들어야 했고, 팝송 한곡 정도는 흥얼거려야 교양인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방송은 각종 쇼와 코메디, 멜로드라마 등 쾌락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대다수였고, 그나마 대부분은 미국이나 일본방송의 포맷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였다. 인쇄매체도 미국과 일본의 것을 모방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매체는 자생적 대중문화의 창출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내용을 모방하여 전달하는 대중문화의 이식 역할에 급급하였다.

외래문화는 우리 자신의 문화의 성장을 촉진하는 영양 또는 자극으로서의 도움이 될 때 그 본래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김태길, 1984). 그러나 이처럼 독자적인 대중문화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외래문화의 급류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하위문화로서의 청소년문화의 자생적 창출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유래없는 한국사회의 입시문화는 별도의 튼튼한 청소년문화를 가질 수 없는 큰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대중문화의 외래성은 청소년문화의 외래성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대중문화의 침투는 그런 우려를 더욱 깊게 해주었다. 일본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는 하였지만 일제의 침략을 가까이 경험했던 기성세대들은 일본문화를 모방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일본문화의 유입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그런 거부감이나 경계심 없이 너무 쉽게 일본문화에 젖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문화와 거의 단절되다시피한 오늘날의 청소년에게 점점 민족정서와 민족문화의 뿌리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민족정서와 민족문화의 부재는 민족통합의 기능을 상실

하게 하여 공동체의식은 물론 공동체문화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한다. 또 고유의 바람직한 전통들을 오늘에 되살리지 못하여 그동안 쌓아온 민족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외에도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게 된다. 문화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들은 정치적,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우리의 문화산업을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자신들의 주변부적 문화로 형성하여 하나의 상품시장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자생적인 대중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그러한 선진국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대중매체의 상업성 역시 청소년문화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은 상업적 성격의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성인들의 문화가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경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자연히 청소년문화도 비록 음성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문화상품들은 그것이 문화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이 소비하는 것을 막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들에게도 정서적 폐해를 주는 많은 성인용 문화상품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직접 청소년 시장을 겨냥한 상업적인 문화상품들도 대량생산되고 있다. 이는 소득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층이 매우 큰 소비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각종 광고나 잡지들, 그리고 청소년층의 소비를 겨냥한 방송프로그램(음반의 판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등이 그 예이다. 특히 한국대중문화의 상업성은 외래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번역만화가 그 예이다. 불법으로 복제된 일본만화의 범람과 합법적으로 간행되는 만화잡지에서 번역 게재하고 있는 일본만화 등은 일본만화의 선정성과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 있는 것이며, 그 질에 관계없이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상흔이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상품을 소비하는 청소년들은 그것이 정서적으로 해악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 또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소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

백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자제력과 판단력의 결핍은 상술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한 문화가 외래문화를 접촉하였을 때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은 단순히 일방적이고 수동적이지는 않다. 즉 문화수용자는 외래문화에 대하여 선별적인 취사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소비 욕구를 채우며 수용하는 문화의 내용도 그것을 수용하는 동기에 의하여 해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임희섭, 1986).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직 그런 문화수용 능력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대중문화의 외래성과 상업성은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이 되어 더욱 많은 폐해를 줄 수 있다.

(3) 대중문화 발달과 청소년유해환경

정체성 없는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성인들의 먹고 마시는 향락적 유흥문화가 청소년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양식을 잃은 상혼은 청소년들에게까지 퇴폐적인 향락서비스를 직접 판매하였다.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업소, 전자오락실, 성인오락실,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디스크장, 퇴폐이발소, 카페, 만화가게, 음란출판물 등을 파는 노점상, 사창가 등이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시설들이다(김문조·김선업, 1992).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향락서비스산업의 기형적 성장에 따라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이런 시설들이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향락서비스산업은 성인의 퇴폐적인 대중문화의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성인들의 유흥문화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유흥문화의 퇴폐성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향락서비스산업의 팽창은 영세한 유흥업소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함께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였다. 그리고 그 영세성 때문에 효율적인 정화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유해시설이나 업소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학교주변 정화지역내의 유흥시설

이나 업소의 50% 정도가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이종 외, 1992).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민생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청소년의 탈선이 기성세대의 생존권의 담보로 제공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이 이러한 유해시설을 이용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지리적 근접성이다. 청소년은 활동공간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주로 집,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환경이 청소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사회화되며 그 환경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거주환경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전통적인 비행이론도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이 유해시설의 접촉기회를 높여주고, 그런 환경에 친숙해짐으로써 비행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haw & Mckay, 1942; 정문성, 1992a). 그것은 음주나 흡연과 같은 은둔적 비행은 거주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하여 성폭행이나 절도 등 성적 또는 폭력적 비행은 거주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은 거주환경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둘째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등의 제도적 영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전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방출되어 유해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Hirsch, 1969; 김준호, 1989).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 등으로 가정에 대한 애착이 없는 청소년들은 거리를 헤매게 되고 결국은 유해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입시문화에 물들어 있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교사나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현실도피적 수단으로 학교밖으로 나와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는 유해시설의 근접성과 유해시설로의 방출요인을 매개시켜주는 요인으로 공적 통제체제의 약화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이문화가 없다는 점이다(권이종 외, 1992). 즉 청소년들이 유해시

설을 이용하는데 별로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인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이 이상의 두 요인의 작용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해시설이 주택가에까지 침투되어 있고, 학교 주변의 정화지역에까지 난립되어 있으며, 이를 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양심없는 상혼은 청소년들을 오히려 고객으로 유혹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지도자 등의 미비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 몰아가는 간접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과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적 요인인지 아니면 개인적 요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해환경에 많이 출입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비행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간의 관계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견해는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유해환경에 출입을 많이 해서 비행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비행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유해환경에 출입을 많이 하는 것인지를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연구는 유해환경과 청소년들간의 상호관계적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나, 여기서는 이것에 접근하기 위한 터반 마련을 위해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주로 접촉하게 되는 유해환경의 종류는 무엇이고, 접촉률은 어떤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그동안 현장에서 실제로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유해환경의 유형별로 청소년이 접촉하는 실태를 조사한 각 시·도의 유해환경 감시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방법

이라 생각된다.

(1) 청소년의 유해성 인지도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유해성 인지도를 살펴보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태를 기초로 청소년들의 인식구조를 분석하여 유해환경의 정화, 규제, 단속, 감시 등의 다양한 차단방법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건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유해성 인지도를 영역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을 시설, 물품, 영상, 인쇄물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유해성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에게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상(37%), 물품(24%), 시설(21%), 인쇄물(1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시설, 물품, 영상, 인쇄물, 중학생은 영상, 물품, 인쇄물, 시설, 고등학생은 영상, 물품, 시설, 인쇄물, 근로청소년은 영상, 물품, 인쇄물, 시설 순이다(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 1996: 60-61). 반면 성인 4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물음에 대하여는 영상(43%), 시설(22%), 인쇄물(19.2%), 물품(15.8%)의 순으로 나타났다(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 1996: 70).

〈표 2-1〉 청소년에게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

구 분	시설(비율:%)	물품(비율:%)	영상(비율:%)	인쇄물(비율:%)
청 소 년	21	24	37	18
성 인	22	15.8	43	19.2

* 출처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996: 61, 71.

위와 같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한 환경으로 '영상'이라고 응답한 것은, 청소년들의 컴퓨터 보유 및 사용 등이 급격하

게 증가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이 두 번째 유해한 것으로 ‘물품’을 응답한 반면 성인들이 ‘시설’로 응답한 것은 세대간의 뚜렷한 인식의 차이로 보인다. 즉 청소년들은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성인들의 통제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약물, 담배, 술 등과 같은 유해물품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성인들은 그러한 청소년들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디스코장, 술집, 오락실 등과 같은 분명한 식별과 확인이 가능한 ‘시설’을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쇄물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유해도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인쇄물이 주는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본만화, 성인만화 등처럼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유해도 평가를 하였다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유해환경을 위에서처럼 4개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19개의 세부항목을 나열한 후,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유해성을 평가해 보면 위의 4개 영역이 아래의 <표 2-2>처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2> 청소년이 생각하는 유해환경

순위	유 해 환 경	비율(%)	순위	유 해 환 경	비율(%)
1	오 락 실	18.6	11	단 란 주 점	2.8
2	담 배	12.6	12	소 주 방	2.8
3	노 래 방	9.0	13	불량배(학교주변)	2.2
4	술	8.2	14	나 이 트 클 럽	2.0
5	당 구 장	6.1	15	폭 력	1.9
6	유 흥 업 소	5.6	16	만 화 책	1.6
7	만 화 방	4.7	17	성 인 극 장	1.2
8	비 디 오 방	4.0	18	불 량 씨 클	1.2
9	담 배 자 판 기	2.8	19	기 타	10.3
10	술 집	2.8			

* 출처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996: 113.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초·중·고등학생 9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이 생각하는 유해환경’의 세부항목별 유해도 평가 조사에서는 오락실(18.6%), 담배(12.6%), 노래방(9.0%) 순으로 나타나 유해물질과 시설에 대한 유해도 평가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역별 유해도 평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던 ‘영상’ 부문의 평가는 비디오방(4.0%), 성인극장(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세부적인 항목제시에서 선정적·폭력적 내용을 지시하는 ‘음란영상물’ 관련 항목이 제외된 것과, 유해도를 평가하는 조건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인지, 아니면 신체적·정신적 영역에 미치는 악영향 인지 등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사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는 학교주변의 불량배(2.2%), 폭력(1.9%) 등에 대한 유해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학원폭력의 폐해와 파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원폭력 관련 항목이 낮게 나타난 것은 위에서 지적한 조사의 한계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거나, 사회의 강력한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실제로 주변의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유해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학교내외의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의 범주로 인식하기 보다는 별도의 영역인 학원폭력 환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유해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영상매체’를 가장 유해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 CD, 비디오 등을 통하여 영상매체가 급격하게 보급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부항목에 대한 유해성 인지도에서도 담배, 술 등과 같은 유해물품이 가장 유해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가 비교적 쉽거나 구입하기 위한 환경이 용이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유해 물품, 유해시설의 유해도 평가 및 접촉실태

유해물품 유통에 대한 규제 및 유해시설 접촉 차단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규제정책 일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를 생산·제작·운영하고 있는 성인들의 자정노력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접촉을 시도하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노력없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유해물품과 유해시설에 접근하는 경로가 다양화·다각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된 통계들의 나열은 단지 이용도 및 경험률을 살펴보기 위한 작업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수치에 불과할 뿐 통계수치간의 상호연관성이나 일관성은 없다.

서울YWCA 강남청소년회관에서 강남구 청소년 537명을 대상으로 조사(1997)한 결과에 의하면, 강남구 청소년들 중 한달 평균 술, 담배 등의 유해물품 구입을 1회 이상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의 40.1%였고, 노래방, 당구장, 디스코장, 술집 등의 유해시설 출입을 1회 이상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의 55.4%로 나타났다.

〈표 2-3〉 강남구 청소년 유해물품구입, 업소출입 현황

구 분	유해물품구입(비율:%)	유해업소출입(비율:%)
없다	59.9	44.6
1-4회	21.2	22.6
5-8회	6.2	10.9
9회이상	12.8	22.0

* 출처 : 최윤진·차조일, 1997: 30-37.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접촉이 많은 술, 담배 등의 유해물품을 구입한 장소는 동네슈퍼나 가게(41.2%), 편의점(28.7%), 노점·자판기(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해시설은 당구장(50.0%), 노래방 및 비디오방(23.1%), 술집(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최윤진·차조일,

1997: 30-37).

또 다른 김준호·박정선(1996)의 연구에 의하면 유해시설을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방, 롤러스케이트장, 당구장, 노래방, 술집, 포장마차, 디스코장, 여관·여인숙, 매춘업소 등 10가지로 구분하여 접촉률을 살펴본 결과, 90.7%가 노래방에 가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자오락실(90.4%), 만화가게(63.2%), 롤러스케이트장(62.4%), 당구장(47.1%), 술집(35.3%), 포장마차(17.0%), 디스코장(10.3%), 여관(8.1%), 사창가(2.5%) 등으로 나타났다(김준호·박정선, 1996: 57).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년들 유해환경 접촉 요인이 접근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술, 담배 등의 유해물품 구입이 다른 물품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구입장소 또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네슈퍼나 가게로 나타난 것은 유해환경이 청소년들로부터 결코 명확하게 구분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삶속에 존재하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은 별다른 규제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이용과 접촉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또 다른 실태는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995)의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신분으로 비교적 출입과 접근이 용이한 전자오락실(95.9%), 비디오대여점(93.9%), 만화대본소(92.4%), 당구

〈표 2-4〉 청소년의 유해환경 출입실태

순위	유 해 시 설	경험률(%)	순위	유 해 시 설	경험률(%)
1	전자오락실	95.9	8	가-페	87.0
2	비디오대여점	93.9	9	비디오방	86.8
3	만화대본소	92.4	10	디스코장	86.6
4	당구장	91.2	11	포장마차	86.6
5	소주방	88.2	12	숙박시설	86.0
6	락카페	87.3	13	퇴폐이발소	39.1
7	다방	87.2	14	사창가	18.3

* 출처 :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995: 41.

장(91.2%), 소주방(88.2%) 등은 높은 출입경험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로 출입하는 대상이 성인들로 규제가 심하고 경로가 용이하지 않은 퇴폐이발소(39.1%), 사창가(18.3%) 등의 출입경험률은 낮게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여주는 출입률의 추이는 대체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 되는 각 업소별 유해성의 정도와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전자오락실과 같이 그 업소의 유해성이 크게 부각되거나 문제 시되지 않는 곳에서의 출입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관이나 사창가 등과 같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에도 출입이 까다로운 곳에서의 출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유해환경을 접촉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정책과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진단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1995)이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유해시설 및 장소 출입이유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어느정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오락실 출입 이유에 대해 '재미있어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분전환을 위해서(30.7%), 호기심 때문에(6.3%),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서(5.6%), 우정 때문에(4.2%)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방 출입 이유로는 기분전환을 위해서(57.6%), 재미있어서(22.1%),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서(4.0%), 우정 때문에(2.3%), 이성교제를 위해서(2.0%) 순으로 응답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기분전환을 위해서' 노래방을 출입하고 있으며, 이성교제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디오방 출입 이유에 대해서는 재미있어서(15.9%), 기분전환을 위해서(11.3%), 호기심 때문에(4.1%),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서(3.8%) 순으로 나타나 비디오방 출입 이유로 '재미있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특히 이성교제를 위해서 비디오방을 출입한다고 2.6%가 응답한 것으로 보

아, 자칫 비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장소로 이용되는 밀폐된 공간인 비디오방은 특별히 주의와 관심 및 단속이 요구되는 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 1995: 102-103).

따라서 유해시설 출입 이유로 보아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유해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바르게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청소년 중 ‘이성교제를 위해서’ 출입했다고 응답한 시설이 노래방(2.0%), 비디오방(2.3%) 순으로 나타나, 최근들어 노래방의 청소년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한 조치는 청소년들이 점차 비행화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책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면 오히려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유해시설로 분류되었던 장소를 청소년들의 건전 놀이문화 장소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하드웨어 부문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성교제와 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3) 대중매체 유해도 평가 및 접촉실태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는 대중매체일 것이다. 특히 민감한 신체적·정신적 위치에 놓여있는 중간적 존재로서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은 성인에 비하여 절대적이다. 최근에는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그들에게 각종 정보를 무한정 제공하자는 역할까지 대중매체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치관, 생활, 행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부문에 걸쳐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의 영향력하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력만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대중매체에 대한 유해도

및 접촉경험을 살펴본다.

① 대중매체 유해도 평가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995)에서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 800명과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중매체에 대한 유해성 인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성을 줄 수 있는 주간만화, 일본번역만화, TV, 영상매체 등 선정한 10개의 대중매체에 대하여 그 유해성 평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음란사진·음란비디오(87.7%), 음란컴퓨터영상 및 게임(86.7%), PC통신속의 음란영상물(86.6%), 일본번역만화(7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선정한 조사항목 대부분이 유해성 평가에서 60%가 넘어 대중매체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유해도 평가는 상당히 높다. 반면 위의 조사결과 TV방송, 스포츠신문, 주간만화, 전자오락 같은 대중매체들에 대해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은 20% 수준이었다.

<표 2-5> 대중매체에 대한 유해성 인지도

대 중 매 체	유 해 성(%)
음 란 비 디 오	87.7
음 란 사 진	87.7
음란컴퓨터영상 및 게임	86.7
PC통신속의 음란영상물	86.6
일 본 번 역 만 화	78.2
음 란 정 보 서 비 스	76.8
전 자 오 락	68.3
주 간 만 화	66.7
T V 방 송 중 일 부	65.0
스 포 츠 신 문 만 화	61.4

* 출처 :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995: 37.

따라서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 영상매체는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반면,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 만화, 잡지 같은 인쇄매체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들어 종합유선방송, 전자영상물 등과 같이 영상매체로 분류될 수 있는 부문의 급격한 발달과 보급, 그리고 청소년들의 컴퓨터를 이용한 대중유해매체에 대한 접근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을 이용한 접촉률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997)에서 대전시내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매체를 조사한 결과 음란비디오(33.9%), 음란 PC통신(13.5%), 불법 CD-ROM(10.4%), 성인영화(10.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음란잡지(4.7%), 성인잡지(3.4%), 스포츠신문(2.7%) 등의 인쇄매체에 대한 유해도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

〈표 2-6〉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매체

순위	대 중 매 체	비율(%)	순위	대 중 매 체	비율(%)
1	음란비디오	33.9	9	일본번역만화	2.5
2	음란PC통신	13.5	10	폭력비디오	1.8
3	무응답	12.9	11	성인만화	1.4
4	불법 CD-ROM	10.4	11	국내음란·폭력소설	1.4
5	성인영화	10.0	12	일반만화	0.7
6	외국음란잡지	4.7	12	국내음란잡지	0.7
7	성인잡지	3.4	13	유선방송	0.2
8	스포츠신문	2.7			

* 출처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998: 65.

영상매체에 대한 유해도는 부산지역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으나 인쇄매체에 대한 유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활자 및 정지화면과 같은 인쇄매체보다는 동화상으로 표현되는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매체에 더욱 자극받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유해대중매체에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경로가 비교적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가 쉽고, 일부 상업주의에 입각한 성인들의 유해한 영

상품 생산, 판매행위가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유해한 대중매체 접촉실태

서울YWCA 강남청소년회관(1997)에서 강남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한달 평균 직·간접적으로 음란서적, 폭력비디오 구입·관람 등의 '유해매체접촉'을 1회 이상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의 2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진·차조일, 1997: 37). 따라서 보다 세밀하게 그 현황을 고찰하기 위하여 인쇄매체는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유해간행물과 최근 들어 유통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전자출판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영상매체는 전자영상물과 종합유선방송, 비디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유해간행물 접촉실태

청소년들이 음란·폭력 간행물을 접촉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성격, 가족의 친밀도, 호기심, 부모의 감독정도, 부모의 불화, 용돈, 친구의 음란·폭력 간행물의 접촉 정도 등 청소년의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여건들이 청소년들의 유해간행물 접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93)의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실태와 접촉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의 중·고등학생 200명 가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란물(70%)과 폭력물(66%)을 접촉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72.8%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1995)이 대전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만화는 44.1%가 접촉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64.8%로 나타나, 여자 22.6%보다 높은 접촉경험 빈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남자(81.1%)와 근로청소년(82.1%)은 평균접촉 빈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성인잡지는 35.5%가 접촉경험한 바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52.2%)가 여자(18%)보다 높은 접촉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남자(70.7%)와 근로청소년(64.3%)은 평균접촉 빈도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음란서적은 36.9%가 접촉경험한 바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54.8%)가 여자(18.2%)보다 매우 높은 접촉경험을 갖고 있고, 이들중 고등학교 남자(77.6%)와 근로청소년(60.7%)은 평균빈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청소년들은 유해간행물 중 성인만화(44.1%), 음란서적(36.9%), 성인잡지(35.5%)순으로 접촉하고, 저학년 저연령보다는 고학년, 고연령이 또 여자보다는 남자가 유해인쇄매체의 접촉경험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만화로 표현되는 선정성·폭력성이 가장 심한 이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만화는 일본만화를 그대로 번역하여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촉률이 고학년의 남자일수록 높다는 것은 유해인쇄매체에 대한 이들의 접촉경로가 쉽거나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97)에서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음란·폭력물 접촉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3.3%가 음란·폭력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반응하였다. 가장 많이 접촉한 음란·폭력 간행물은 일본복제만화로서 50.7%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성인용만화(50.2%), 포르노사진(47.9%), 성인용잡지(43.5%) 등이었다(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7: 79-80). 이것은 성인용만화의 접근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변의 금지와 통제가 약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접촉장소는 친구집(41.9%), 자기집(27.5%), 학교(9.7%), 만화가게(7.6%), 도서대여점(6.9%), 학교앞 서점(3.1%), 가판대(1.8%), 컴퓨터 상가(1.3%) 순으로 나타나(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7: 84), 청소년들의 음란·폭력물 접촉장소가 비정상적인 장소나, 자신의 일상과 떨어

진 특수한 장소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친구집, 자기집, 학교 등과 같은 청소년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또한 유해간행물의 구입이 용이한 장소로는 만화가게(13.8%), 도서대여점(11.2%), 학교앞 서점(7.3%), 가판대(6.6%), 컴퓨터 상가(5.3%) 순으로 나타나(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7: 85),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는 대부분 유해간행물을 접하거나 구입이 용이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나. 유해전자출판물 접촉실태

일반적으로 출판물이라 하면 ‘서적이나 도화 등을 인쇄하여 발매·반포’하는 개념을 떠올리기 쉬우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대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정보화 시대는 전자화된 출판물¹⁾을 등장시켰고, 우리는 책이라는 개념을 예전처럼 좁게 사용하기 보다는 넓혀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CD나 PC통신 등을 이용한 유해전자출판물의 접촉현황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96)가 서울시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접촉 빈도면에서 볼 때, 디스크 접촉률이 54.8%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통신을 사용한 경험은 26.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음란물을 접촉한 학생은 72.8%에 이르고 접촉방법에 있어서 음란디스크 출판물 접촉 학생은 35.9%, 음란 통신출판물 접촉 학생이 27.4%로 나타나(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6: 91), 92년도에 한국청소년학회에서

1) 이러한 사회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유해전자출판물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제작과정과 저장하고 유통하는 방식이 전산화되어 있고 책의 성격을 띤 CD(디스크 전자출판물)나 PC통신상의 전자통신출판물 중 청소년의 신체나 정신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사한 디스크 출판물 접촉(23.9%)과 통신출판물(거의 없음) 접촉과의 비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접촉에서는 실업계·인문계 남자(95.8%), 중학교 여자(78.9%), 중학교 남자(74.3%), 실업계 여자(68.3%), 인문계 여자(64.2%) 순으로 나타나 남자 고등학생의 유해 전자출판물 접촉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 남자의 경우 34.4%, 실업계 남자의 경우 27.4%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상습 접촉자임이 나타나(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6: 91), 이는 93년도에 청소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컴퓨터 음란물의 상습 접촉자 13%보다 훨씬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이출판물에서 비종이출판물로의 전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음란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전에는 종이인쇄물이나 비디오 음란물을 접했으나 지금은 CD, PC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즈음 등장하는 신종 매체는 더욱 현실감이 있으며 집안에서 언제든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음란 전자영상물 접촉실태

전자영상물²⁾은 대용량화된 컴퓨터의 보급과 CD-ROM 등과 같은 전자기기의 출현에 따라 영상과 음향면에 있어서 거의 영화와 같은 영상물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3차원의 화상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 2) 전자영상물이란 영상, 음향, 문자 등의 정보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컴팩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매체 또는 ROM 반도체를 이용한 물품에 수록되어 재생·운영되거나 PC 통신을 통하여 전달·운영되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있어서는 PC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에서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8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음란컴퓨터 프로그램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중 73.4%가 유해하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청소년중 11.3%는 다소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66.3%)가 여자(80.1%)보다 덜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 PC통신(천리안, 하이텔 등)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63.4%가 유해하다고 응답했으며, 유익성에 대해서는 18.7%가 다소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57.1%)가 여자(70.1%)보다 덜 유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 1995: 131).

문화체육부에서 초·중·고등학생 7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음란 전자영상물의 접촉경험의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가 51.3%였고 경험이 없는 경우가 48.7%였다. 이것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상급학교로 갈수록 음란 전자영상물을 접촉한 경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16.1%,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17.2%,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가 9.1%로 그 증가폭은 상당히 큰 편이다. 또한 음란 전자영상물의 접촉경험률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30.4%)보다 남자(67.9%)가 훨씬 많이 음란 전자영상물을 접촉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 전자영상물의 접촉경험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37.5%로 매우 큰 것이었다(문화체육부, 1995: 390).

또한 청소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음란 전자영상물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게임, 정지사진, 활동사진을 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음란 텍스트 소유는 적은 편이었다. 이것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게임(40.7%)이 가장 많았고, 음란 텍스트(1.9%)는 가장 적었다. 중학생은 정지화상, 활동화상, 게임, 음란 텍스트의 순으로 음란 전자영상물을

소유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활동화상(32.4%)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게임(22.5%), 정지화상(17.1%), 음란 텍스트(4.5%)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은 정지화상(32.6%), 활동화상(25.9%), 게임(18.5%), 음란 텍스트(9.6%)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음란 텍스트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는 음란 전자영상물의 유형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부, 1995: 400-401).

그리고 컴퓨터통신 이용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조사 결과 '통신으로 여성의 수영복 차림이나 나체사진 등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해서 42.0%의 청소년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통신을 이용하여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 사진 등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해서는 22.0%의 청소년들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부, 1995: 593).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시청경험은 남자 중학생의 42.4%와 고등학생의 59.9%가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자 중학생의 0.6%와 고등학생의 7.6%가 시청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자 중학생은 일년에 1-2번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48.2%) 하였고, 남자 고등학생의 48.7%도 일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천, 1996: 30).

라. 유선방송 및 음란 비디오 접촉실태

청소년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소개되고 대중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문화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뿐 독자적인 문화로 자리잡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고객이 성인을 목표로 제작·유통되는 유선방송이나 비디오가 이제는 청소년들의 영역에 깊게 침투하여 부정적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성인들의 상업주의적 이해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호기심이 상호결합하여 파생된 결과라 본다.

일반적으로 영상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중에서 가장 부정적 요인은 선정성·폭력성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모방과 심리적 자극이 제일 크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부분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문화체육부(1995)에서 종합유선방송의 영화, 오락, 여성 채널의 3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장면은 모두 2,773장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해장면 가운데 청소년에게 가장 유해성의 정도가 높은 범주는 폭력·공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80장면으로 전체 유해장면으로 판명된 것 가운데 38.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바른 언어생활 위반 장면으로 전체의 37.6%에 해당하는 1,043장면이었다. 선정성과 사회규범 위반성은 각각 329장면(11.9%), 321장면(11.6%)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부, 1995: 105). 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종합유선방송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폭력·공격적인 내용과 바른 언어생활을 오도하는 등과 같은 표현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부(1995)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4.7%, 시청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55.3%로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한 청소년보다는 그렇지 못한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53.6%), 중학생(42.6%), 고등학생(34.8%)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부, 1995: 122-123). 그리고 청소년들이 종합유선방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저질문화의 유입이 39%로 가장 많았고, 학업방해가 27.8%, 가족간의 대화부족이 17.8%의 순이었으며, 친구사이의 위화감 조성이나 건강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부, 1995: 175).

이처럼 종합유선방송에서 선정성·폭력성의 내용은 전체 중에서 11% 내외를 차지하고, 종합유선방송 접촉률이 44.7%에 이른다는 수치는 외견상 커다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관심이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유선방송의 접촉에 따른 유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청소년 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유선방송 이용도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36.8%, '한달에 1-2회 정도' 9.5%, '두세달에 1-2회 정도' 4.5%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용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8.9%에 이르고 있어 가정의 경제력, 지역적 위치, 그리고 부모들의 적절한 통제 등이 청소년들의 유선방송 접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 1998: 47). 또한 유선방송 접촉후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아주 이롭다'가 11.3%인 반면에 '아주 해롭다'가 16.5%로 나타나 유선방송에 대한 청소년들의 유해도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선방송을 접촉하는 장소로 집(65.9%), 친구집(3.6%), 선배나 후배집(0.5%) 순으로 나타나(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 1998: 61) 유선방송 접촉장소는 대부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부모들의 효과적인 노력만 기울여 진다면 어느정도 접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음란비디오의 청소년 접촉률로 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대구 시내 중·고등학생 587명을 대상으로 성인용 비디오 접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31.7%가 성인비디오를 본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용 비디오를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62.9%로 나타났다. 성인용 비디오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친구에게 빌려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5%, '스스로 대여집에서 빌려서'가 20.8%, '집에 테이프가 있어서'가 10.7%, '유흥장소에서'가 1.9%로 60.5%의 청소년이 '성인용 비디오'를 접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995: 264-265).

또 박용천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의 54.6%와 남자 고등학생의 80.8%, 그리고 여자 중학생의 61.4%와 여자 고등학생의 73.1%가 성인용 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르노 비디오의 경우도 남자 중학생의 45.7%, 남자 고등학생의 75.2%, 여자 중학생의 19.3%,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의 31.5%가 시청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빈도 측면에서는 성인용비디오는 남자 중학생의 40.2%가 일년에 1-2번 시청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자 고등학생은 38.5%가 한달에 1-2번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자는 교급에 관계없이 일년에 1-2번씩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박용천, 1996: 30).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가 관심있게 주목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1994)이 서울시내 고등학생 5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음란비디오 접촉경험에 의하면 남학생 88%, 여학생 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학생의 48%, 여학생의 17%가 본대로 행동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남학생 가운데 7%는 '본대로 해보았다'고 응답해 음란비디오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유해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에서 8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음란비디오를 접촉후의 느낌에 대하여 '성충동이 일었다'가 24.0%, '재미있었다'가 20.1%, '별느낌이 없었다' 19.2%, '기분이 좋았다' 7.3%, '좀더 자극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다'가 7.1% 순으로 나타났다(대전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 1995: 138).

우리 청소년들의 현 주소를 조혜정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람의 품이 아니라 폭력과 에로물이 중심 주체가 되고 있는 비디오에 의해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대구YWCA 유해환경감시단, 1995: 237). 그렇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은 영상세대이지만 영상문화가 없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다.

영상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력은 잔영효과 및 내재

화라는 부분이다. 미국 네바다주립대학의 윌링워스 교수의 영상기억 잔류도 실험에 의하면 비디오(영상) 교육은 오디오와 서적에 비해 24시간 후 7.5배 이상의 기억 잔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음란, 폭력 비디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잔악한 인간으로 학습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논의³⁾

청소년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구조적인 유해환경변수에 주로 관심을 두는 사회구조적(social structure)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정에서 작용하는 유해환경변수에 관심을 두는 사회과정적(social process) 관점이다(Gibbons, 1981: 125). 전자에 긴장이론(Strain Theories), 문화일탈이론(Cultural Deviance Theories) 등이 대표적이고, 후자에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ies),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ies) 등이 대표적이다.

1) 긴장이론

긴장이론에서는 사회구조적 조건으로서 유해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유해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개인의 적응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Gibbons, 1981: 128). 긴장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Merton(1968), Cloward 및 Ohlin(1960), 그리고 Cohen(1959) 등이다.

Durkheim의 아노미(anomie)이론을 이어받은 하버드학파의 Merton은 한 사회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그 사회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

3) 본 절은 정문성 교수(인천교육대학)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수록 하였다.

하는 제도화된 수단이라는 사회구조속의 두 가지 요소를 주목하였다.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수단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때에는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지만, 목표와 수단 간에 단층(discrepancy)이 있을 때는 아노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수단의 단층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 사회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특수하게 적응할 것이 기대되는데 이 적응의 압력이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즉 Merton의 비행이론은 '사회구조에서 생기는 긴장 => 아노미 => 비행증가'의 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물질적 부라는 문화적 목표는 보편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제도적 수단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목표와 수단과의 긴장이 극대화될 때 아노미가 일어난다. 특히 하류계층은 이 아노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면 하류계층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비행이라는 것이다. 즉 가정적으로 가정불화, 빈곤, 불량 주거공간,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 교육풍토, 비행성 또래집단, 열악한 학교환경, 사회적으로는 상업성에 기반한 저급한 대중매체, 지역사회의 해체 현상 등 구조적인 유해 환경이 주로 하류 계층으로 하여금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Cloward와 Ohlin은 Merton의 아노미이론과 Sutherland(1978)의 차별 접촉이론을 절충한 이질적 기회구조론(Theory of Differential Opportunity Structure)을 주장하였다. Merton이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만을 강조한 나머지 목표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인 비합법적인 기회도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합법적인 기회구조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도 그가 비합법적인 기회구조에 흡수되지 못하면 비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표갑수, 1986: 23-24). 그래서 목표와 수단에 더하여 지역사회 조직을 강조한다. 비행자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제공하는 비합법적인 기회구조에 따라 비행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이다.

Cohen은 아노미이론을 바탕으로 비행이 하류계층적인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비행집단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하위문화를 계급적 긴장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파악하였다. Merton은 목표와 수단에 관련된 사회계급이 비행의 중요원인이 된다고 보지만 Cohen은 사회계급과 비행 사이에 사회가치관이라는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비행을 설명한다. 사회에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중심문화가 있으며 이 중심문화는 중류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한다. 모든 사회제도와 문화는 이 중류계층을 중심으로 한 중심문화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청소년과 깊이 관련된 학교는 중류계층의 가치관 전달에 전념하고 있고 중류층의 척도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⁴⁾ 그러므로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계층 중심문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이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공통의 관심사로 하여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행성 또래집단이다. 이들의 문화는 집단내적으로 자율성과 단결성이 강하고, 외적으로는 적대감을 나타낸다. 이 하위문화의 특징은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 악의성(maliciousness), 부정성(negativistic) 등 순간적 쾌락주의이다. 비공리성이란 그들이 위해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드릴과 흥미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미한다. 악의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금기를 파괴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성이란 그들의 비행은 성인문화를 부정하는 차원이지만 전문적인 범죄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

4) Cohen은 미국의 청소년을 평가하는 중산계급의 가치기준으로 1)추진력과 야망, 2)개인의 책임성, 3)직장 학교에서의 성취와 성공, 4)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합리성, 5)물리적 공격과 폭력의 통제, 6)건전한 오락의 활용, 7)타인의 재산존중, 8)미래의 이익에 대한 욕구달성을 위한 즉흥적 만족의 억제, 9)대인관계에서의 예의범절의 함양과 자아통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표갑수, 1986: 19-20).

다. 결론적으로 Cohen이론의 핵심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계층의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받을 때 그들이 받는 좌절감에 대한 반응으로서 비행성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사회화된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사회계급이 하류계층으로 하여금 비행성 또래집단이라는 유해환경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비행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긴장이론은 청소년 비행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구조로서의 유해환경을 문제로 인식하고 하류계층의 비행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보편적인 중심문화, 문화적 목표의 가정 자체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Liska는 목표-수단의 괴리=>비행이라는 도식은 논리적 비약임을 비판하였다. 긴장이론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상류계층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긴장이론에 의하면 상류계층의 청소년은 제도적 수단의 접근기회가 높기 때문에 긴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비행도 나타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상류계층은 근본적인 유해환경이 없으므로 전혀 비행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상류계층의 비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 문화일탈이론

문화일탈이론에서는 비행을 촉진시키는 행위규범, 신념, 가치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둔다(Gibbons, 1981: 130). 문화일탈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Shaw, McKay, Miller, Matza, Sykes 등이 있다.

Shaw와 McKay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시카고지역의 연구를 통하여 비행은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을 부정하고 비행현상을 특정한 지역사회와 그 지역공동체를 특징짓는 사회적 요소와의 상관관계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비행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당시에는 선천적으로 열등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노동자계급의 청

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결함론을 거부하고 경험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비행의 사실적 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이들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는 도시의 비행자들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비행발생 지역과 관계있는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 얻은 사실은 비행자들은 도시내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중심상업지역 주변, 철도와 도살장 주변, 산업 지역, 철강 지역 등 가장 황폐화되고 기피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후 많은 후속 연구에서도 도시 중심부로 갈수록 비행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일관되게 나타났다(Gibbons, 1981: 156). 즉 비행자는 인구가 많고 쇠퇴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인 사회적 조건에 관해서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높은 비행율과 관계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물리적 쇠퇴가 일어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상업 및 산업적 기업들이 기존의 거주지역을 침범하게 되고, 그 결과 거주환경이 악화되며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빈곤화 되는 지역이다. 오래되고 황폐화된 건물, 쇠퇴하는 이웃 등 집세가 낮아지고 빈곤계층의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셋째는 유색인종 지역이다. 비행발생 지역은 이민 온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는 높은 사회악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무단결석, 유아사망율, 정신질환, 결핵, 성인범죄 등 사회악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이는 도심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들의 이론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로 도시가 쇠퇴하는 지역들은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가 이루어지고, 둘째로 사회가 해체된 지역들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제의 부족을 가져오며, 셋째로 사회통제의 부족은 거리의 불량배(street gangs)를 양산하고, 넷째로 비행의 전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다섯째로 비행의 전통은 높은 비행

을을 낳는다. 결국 쇠퇴하는 지역은 사회적 해체를 낳고, 사회적 해체는 청소년에 대한 통제를 약하게 하며, 통제의 약화는 비행집단을 발생시키며, 비행집단은 비행의 전통을 만들고, 비행전통은 높은 비행률을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이론이다. 결국 유해환경이 비행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최근 거주환경과 청소년의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정문성, 1992a).

한편 Miller는 하류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즉, 관심의 초점(focal concern)이 비행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사회가 공통적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Merton의 이론과는 달리 Miller는 계급간의 차별적인 문화체계가 존재하고 가치체계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또 비행이 중류층의 문화양식에 대한 반응이라는 Cohen의 입장과는 달리 하류계층의 청소년은 그들 계급의 가치관에 동조함으로써 비행을 하게 된다고 본다. Miller는 하류계층이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 즉 관심의 초점을 다음과 같이 6 가지로 제시하였다.

- ① 분쟁(trouble)에 대한 관심으로 이는 경찰 등 당국과의 분쟁을 의미한다.
- ② 역셈(toughness)에 대한 관심으로 힘의 과시, 대담성 등 남성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영리함(smartness)에 대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말한다.
- ④ 흥분(exciteness)에 대한 관심으로 도박, 격투 등 모험적인 행위를 뜻한다.
- ⑤ 숙명(fate)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들의 생활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에 달려있다고 생각함을 뜻한다.
- ⑥ 자율성(autonomy)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은 잠재적 욕망을 말한다.

이 6가지의 관심의 초점은 근본적으로 일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

한 관심사의 추구는 비행의 원인이 되기 쉽다는 것이 Miller의 주장이다. 또한 Miller는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여 아버지가 없는 결손가정의 청소년은 남성역할의 동일화 모델을 비행집단에서 찾게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Miller는 하류계층의 일탈문화라는 유해환경과 결손가정 또는 문제가정이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긴장이론과 문화일탈이론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긴장이론이 긴장의 문제로 인한 비행자의 적응문제에 관심을 둔 반면 문화일탈이론은 하류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에 대한 반응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일탈이론은 하류계층문화의 생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나 긴장이론과 마찬가지로 상류층의 비행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진다. 또한 하류계층이 공유한 문화적 가치의 발생근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3) 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이나 문화일탈이론이 사회구조에서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려는데 비하여 사회학습이론은 다른 모든 행동이 학습되는 것처럼 비행도 학습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학습이론에 의하면 유해환경에 많이 접촉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대중매체의 유해성을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Bandura 등(1961)은 공격장면을 보게 되면 이를 모델로 삼아 모방하거나 관찰학습과정에 따라 예전에 알지 못했던 공격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격행동 레퍼토리가 증가하게 되고, 금지해제현상이 일어나 그동안 부모와 교사들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공격행동이 별다른 사회적 제약을 받지않고 쉽게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학습이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회인지론적 관점의 점화가설에 의한 연합망이론과 인지적 지식의 틀(cognitive script) 형성이론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Berkowitz(1984)의 점화가설에서는 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이나 생각은 그물처럼 형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위가 자극되면 다른 부위 역시 점화되어 연합경로를 통해 즉각 함께 반응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격장면을 보거나 흥기 등을 갖고 있으면 이 점화과정을 통해 쉽게 생각이나 경험이 공격행동으로 표출되게 된다. 또한 Huesmann(1986)의 인지적 지식의 틀 형성이론은 아동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형성해 온 인지적 지식의 틀이 쉽게 작용하게 되는데 공격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애매한 장면을 폭력적인 것으로 해석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동시에 현실생활에서 문제해결이 필요한 때에 공격행동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고, 따라서 평화적인 해결보다는 공격적인 해결을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격행동은 사회적 자극과 단서(폭력 영화, 총칼과 같은 무기, 극렬한 프로권투나 불량배들의 패싸움 장면 등)에 의해 학습되고 촉발될 수 있으며 폭력과 같은 자극물은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공격행동에 대한 인지적 지식의 틀이나 사고체계를 점화하고 작동케 하여 사회적 좌절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부딪치게 될 때 다른 대안보다 공격적인 방법을 우선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Freud와 Lorenz 등이 인간의 본능(죽음, 파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화(catharsis)이론은 공격장면을 보고 나면 일시적으로 후련하게 느끼며 개인의 공격충동이 그 이전보다 감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공격장면을 보고 나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후련해질 뿐 사실상 공격장면을 보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더 공격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공격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이론의 타당성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 있다(윤진, 1990; 윤진·곽금주, 1991).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을 체계화한 대표적 이론은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ies)과 이를 발전시킨 Aker의 차별접촉강화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Reinforcement Theories)을 들 수 있다.

Sutherland는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비행도 면접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학습된다고 전제하고 비행의 학습과정을 밝혔다. 그의 이론은 다음의 9가지 명제로 요약된다(Gibbons, 1981: 133-134).

- ① 비행행위는 학습된다.
- ② 비행행위는 의사소통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다.
- ③ 비행행위에 대한 학습의 주된 기회는 가족, 친구, 또래 집단과 같은 친밀한 개별 집단내에서 이루어진다.
- ④ 비행행위가 학습될 때, 그 학습에는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간단한 비행기술이 포함된다.
- ⑤ 비행의 동기는 범규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의(definition)로부터 학습된다.
- ⑥ 비행은 범법에 대한 부정적 정의보다 범법에 대한 긍정적 정의의 과도로 발생한다.
- ⑦ 차별 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권(priority), 강도(intensity)에 있어 다양하다.
- ⑧ 비행양식(criminal pattern)과 비비행양식(anticriminal pattern)과의 접촉을 통한 비행학습과정은 다른 학습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 ⑨ 비행행위가 일반적인 요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비비행적 행위도 일반적인 요구와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구가 가치관으로 비행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두 가지 기본 명제로 출발했다. 첫째는 인간에게 비행성향은 없으며 오히려 규범동조적인 존재이다. 둘째로 사회적 분화가 일어나면 문화적 분화가 수반되어 문화갈등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행자는 그가 소속된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규범 동조자이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력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비행자가 된다.

그러므로 Sutherland는 비행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속에 사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학습되는 비행행위의 긍정적 인식의 표현이며, 비행문화 또는 비행 기회의 접촉이 비비행문화의 접촉을 능가할 때 비행자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행자는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된 자인 것이다.

한편 Aker(1977)는 차별접촉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 행동 강화 이론의 개념을 비행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Aker에 따르면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학습메카니즘은 자극에 의한 조건화(conditioning)이다. 인간의 행위는 긍정적 강화나 부정적 강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중요한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 그 집단은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좋고 나쁨의 평가적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 강화가 된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하여 좋다거나 적어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하면 할수록 그 행위에 몰입하기 쉽다는 것이다.

Aker는 음주와 마약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음주를 하거나, 마약을 먹거나, 또는 비행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들과의 차별적 접촉이 비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Gibbons, 1981: 135-136). 그러므로 개인이 속한 집단이 그 개인의 행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비행성 또래 문화라는 유해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학습이론은 유해환경의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은 고울의 비행지역인 유해환경에 거주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비행을 하지 않는가 하는 점도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경험적 검증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즉 어떤 특정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떤 특정 행위를, 어느정도의 강도로 학습했는지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집단과 많은 접촉을 했는데도 비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표갑수, 1981: 34)

4) 통제이론

통제이론은 사람들이 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비행동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 외적 사회통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내적 통제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제를 뜻하며, 외적 통제는 비행자가 됨으로써 가족과 동료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의 인식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비행자이고 잠재적 범죄자이므로 가족, 동료 등과의 사회적 연대나 통제가 약해지면 언제라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통제이론의 기본적 가정이다. 그러므로 통제이론에서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애정이 결핍된 부모-자녀관계, 가족의 해체현상, 결손가정이나 비행을 방조하는 불량주거공간, 지식위주 교육풍토, 과밀학급, 지역사회 해체현상 등의 유해환경이 만연하여 청소년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때 비행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Hirschi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있고, 따라서 보상이 있다면 사회규범을 어길 수 있다는 비행성향에 있어서는 계층간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하류계층 뿐만 아니라 중류계층 및 상류계층에서도 사회에 대한 결속력이 약한 사람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Hirschi는 개인이 사회와 유지하는 사회결속으로 4가지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① 애착심(attachment) :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관심을 뜻한다.
- ② 위탁심(commitment) : 관습적인 규범(시간, 돈, 노력, 지위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 ③ 참여(involvement) : 사회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관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신념(belief) : 사회의 중심 가치관의 수용을 의미한다.

Hirschi는 이 4가지 사회통제요소가 잘 유지되어야 개인과 사회가 결

속되어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유해환경은 이러한 네 가지 사회통제요소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게 된다.

Matza와 Sykes는 기존의 비행이론이 인간행위에 영향을 주는 외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요인들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고 비판한다. Matza와 Sykes에 의하면 비행은 비행 하위문화의 소산이 아니며 청소년기에 볼 수 있는 일시적인 표류(drift)상태임을 강조했다. 즉 대부분의 비행은 관습적인 생활양식과 비행적인 생활양식 어느 쪽에도 강하게 동화되지 않은채 표류하는 상태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Matza와 Sykes는 사회통제가 효과적인 한 비행동조적 행위는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준법의식을 약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준법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메카니즘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였다. 그 정당화를 Matza와 Sykes는 중화기술(neutra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비행을 알면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해주는 중화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섯 가지의 중화기술은 다음과 같다.

-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으로 자신의 비행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책임을 돌림으로서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으로 자신의 비행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the victim)으로 자신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입어 마땅한 사람으로 간주함으로써

써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으로 비행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고도의 충성심의 호소(appeal to higher authorities)로 비행자는 자신의 비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충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화기술은 비행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중화기술을 촉진케하는 것은 잠재적 가치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비행하위문화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충실하지만 그 지배적 가치의 한 단면이기도 한 사회의 잠재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이중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순은 비행자들이 자신들의 비행을 합리화해 주는 구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표갑수, 1981: 38). 그러므로 유해환경은 청소년 자신들의 비행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소위 '잠재적 가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통제이론의 가장 큰 강점은 다른 이론에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상류층의 비행을 포함한 계층에 관계없는 모든 비행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험적 검증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Matza와 Sykes의 이론은 대다수의 비행자가 범죄인으로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었고, 비행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행사회와 일반사회의 가치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5) 결 론

청소년유해환경에 관한 이론은 주로 어떤 유해환경이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가 하는 문제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사회구조적 변수로서 유해환경에 관심을 둔 이론으로 긴장이론과 문화일탈이론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과정으로서 유해환경에 관심을 두는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이 대표적이다.

Merton, Cloward 및 Ohlin, 그리고 Cohen 등의 긴장이론은 사회는 엄격한 계층이 존재하며 주로 하류계층이 사회구조적으로 유해환경에 주로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유해환경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것이 청소년비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청소년유해환경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류계층의 비행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보편적인 중심문화, 문화적 목표의 가정 자체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목표-수단의 괴리=>비행이라는 도식의 논리적 비약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긴장이론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상류계층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긴장이론에 의하면 상류계층의 청소년은 유해환경이 없기 때문에 즉, 제도적 수단의 접근 기회가 높기 때문에 긴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비행도 나타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Shaw, McKay, Miller 등의 문화일탈이론에서는 비행을 촉진시키는 거주환경과 행위규범, 신념, 가치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둔다. 긴장이론과 문화일탈이론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긴장이론이 긴장의 문제로 인한 비행자가 자신이 처한 유해환경에 적응하는 문제에 관심을 둔 반면 문화일탈이론은 거주환경과 관련된 하류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에 대한 반응, 즉 비행성 또래문화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일탈이론은 하류계층문화(이것은 상류계층에서 보았을 때 비행문화이고, 그 문화 자체가 유해환경이다)의 생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나 긴장이론과 마찬가지로 상류층의 비행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진다. 또한 하류계층이 공유한 문화적 가치의 발생근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긴장이론이나 문화일탈이론이 사회구조에서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려는데 비하여 Bandura, Brekowitz, Huesmann, Sutherland와 Aker의 사회학습이론은 유해환경에 접촉을 많이 할수록 모방 비행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즉 비행도 다른 모든 행동이 학습되는 것처럼 학습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주로 성인의 범죄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학습이론은 고울의 비행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비행을 하지 않는가 하는 점도 정교하게 설명해 준다. 유해환경에 접촉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강화가 없다면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경험적 검증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즉 어떤 특정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떤 특정 행위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학습했는지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Hirschi와 Matza와 Sykes 등의 통제이론은 유해환경이 근본적으로 비행동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은 비행동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 외적 사회통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내적 통제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제를 뜻하며, 외적 통제는 비행자가 됨으로써 가족과 동료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의 인식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비행자이고 잠재적 범죄자이므로 가족, 동료 등과의 사회적 연대나 통제가 약해지면 언제라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통제이론의 기본적 가정이다. 그러므로 유해환경의 확산은 비행의 통제능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한다. 통제이론의 가장 큰 강점은 다른 이론에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상류층의 비행을 포함한 계층에 관계없는 모든 비행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험적 검증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Matza와 Sykes의 이론은 비행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행사회와 일반사회의 가치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그

리므로 유해환경과 범죄와의 직접적 관계를 상정하기보다는 청소년유해환경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비행은 범죄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해환경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회학습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유해영상매체와 인쇄매체이다. 홍콩 폭력영화가 우리 사회의 폭력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음란성에 대해서는 엄격하나 폭력성에 대해서는 관대한 심의 기준의 틈새를 타고 한 편의 영화에서 수백 명을 잔인하게 무참히 죽이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인 홍콩 강패영화들이 무방비로 우리에게 노출되었고, 이는 곧 비디오로 출시되어 더욱 노출될 뿐 아니라 안방 TV에서까지 방영되었다. 이처럼 홍콩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국산 영화들도 비슷한 류의 강패 영화들을 만드는 문화 종속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관객과 시청자는 주로 청소년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청소년 사이에 폭력 미화 현상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래시계 논쟁은 텔레비전의 폭력성 문제를 잘 대변해 주는 예이다. 이에 대한 한 신문 사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의 TV드라마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영시작과 더불어 화제가 되면서 종영에 이르기까지 한 드라마가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드라마의 재미를 뛰어 넘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지나왔던 어두운 시대의 터널에 대한 현대사적 재평가라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는 두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한쪽은 정치 폭력이라는 축, 다른 한쪽에 사회 폭력이라는 또 다른 축을 설정 하면서 참담했던 한 시대의 정치·사회를 재생·재조명하고 있다. 카지노라는 한 기업을 중심으로 정치 폭력의 축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자금을 거둬들이고, 또 다른 축인 사회 폭력배들과의 은밀한 야합을 통해 정치적 권모술수를 자행한다.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여공 파업을 거쳐 삼청교육대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들이 드라마로 재생되면서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단순 재미보다는 지나간 나 자신의 처절했던 과거사를 재생한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삼청교육대로 조사됐다. 정치폭력으로서의 광주사태, 그리고 사회 폭력을 정치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 폭력의 절정을 삼청교육대에서 보기 때문에 “모래시계”는 ‘귀가 시계’가 될 수 있었고, 파쇼정권과 정치 폭력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과 교훈을 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모래시계”의 극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폐단 또한 뒤따랐다. 정치 폭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회 폭력이라 할 폭력배 집단이 미화되는 부작용도 몰고 왔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형태의 폭압이나 폭력은 정의롭지 못한 반사회적 요소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정치 폭력의 고발에만 주력한 나머지 사회 폭력의 의리와 주먹·칼싸움이 정당 방어의 수단으로까지 미화되고 숭상되는 악폐까지 몰고 왔다(중앙 일보, 1995. 2. 15).

모래시계가 성공을 거두자 이와 비슷한 방송이 많이 방영되었고, 텔레비전의 폭력 장면도 더욱 많아졌다.

인쇄매체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불법 일본번역만화였다. 인쇄매체는 부호매체와 조형매체로 나누어진다. 부호매체는 문자(활자)라는 상징 부호를 통하여 의미가 전달하고, 조형매체는 그림이라는 조형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조형매체로서 만화는 가시적인 매체가 가지는 약점을 활자로 보완해 주며 그림과 내용에 있어서 다른 그림체가 가지지 못하는 무한한 과장과 생략, 왜곡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학에서처럼 여과된 언어

가 아닌 현실과 밀착된 구어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 인쇄매체라고 볼 수 있다(이원복, 1992). 이러한 부호 매체로서 대중화된 것이 만화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몇몇 출판사들이 일본의 청소년 만화를 들여와 대량으로 복제 출판하여 유통시킨 불법 만화가 청소년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그 내용의 저질성으로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일본 번역 만화의 특징은 ‘선은 폭력과 물리적인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형제 뿐 아니라 어린이와 여자까지 누구도 죽일 수 있다는 목적지상주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언어 구사 -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림과 언어’, ‘격투기라는 스포츠를 살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공격적 성향을 자극하는 악영향을 끼쳐왔고 그것이 오늘날 청소년 폭력 문화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진회 사건은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을 잘 대변하고 있다.

Ⅲ.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활동 실태와 문제점

현재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은 전국의 12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민간감시단 활동은 YWCA, YMCA,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등과 같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민간감시단이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한 민간감시단의 활동영역이 시·도 전체를 상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여건 등을 포함한 많은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은 주변의 유해환경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과 이를 접촉하는 청소년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실태를 감안할 때, 민간감시단 역할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감시단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본 3장에서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조직, 재정지원, 활동실태, 문제점 등을 통해 살펴 보겠다.⁵⁾

1. 운영조직 및 재정지원 현황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대부분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먼저 운영조직면에서 단체의 장이 책임자로 되어있고,

5) 본 장은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민간단체(마산YMCA, 춘천YWCA, 대구YWCA, 전주YWCA,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운영조직과 재정지원, 활동실태, 문제점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원고를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고 있다.

실제적인 업무는 간사 1-2명이 총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원은 대부분 주부, 대학생,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다. 또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모니터 활동, 고발접수 및 처리, 그리고 현장 감시 활동 등이다.

또한 재정지원은 국고, 지방비, 민자 등의 3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은 극히 열악한 실정으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민간감시단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 운영 조직

민간감시단의 인적구조는 감시단장 1인, 부단장 1인(또는 사무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간사 1-2인을 두어 감시단을 운영한다. 단장은 대부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장이 겸직하고 있고, 부단장 또는 사무장은 부서의 장이 맡고 있다. 그리고 단체의 여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간사 1-2명 외에 재정의 여건에 따라 업무 보조원을 일용이나 위촉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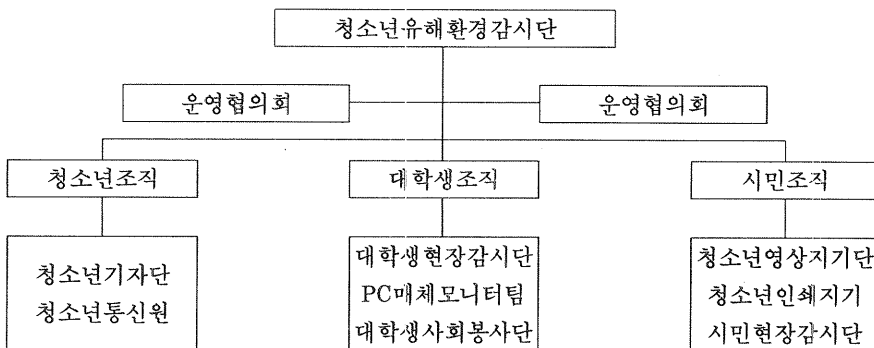
또한 민간감시단은 부족한 재정지원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자문협의회(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할 때마다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과 협조를 받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부족한 민간감시단의 재정을 여러 측면에서 보조·지원하거나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적절한 충고나 조언을 하고, 민간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역사회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는 현재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민간단체들의 감시단 활동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는 그 지역의 교수, 언론인, 교육관계자, 종교인, 지역 예술인 등을 중심으로 한 20여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감시단은 대부분 두 가지의 변인에 따라 그 조직의 형태를 조금씩 달리한다. 첫째는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는 활동주체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활동목적에 따른 운영조직을 갖는 유형이다.

먼저 활동주체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고 운영되는 민간감시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간감시단의 조직과 운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한 향후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변인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자원봉사자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간감시단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구성은 청소년, 주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로 이들의 도움과 지원은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조직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고 있다. 물론 다른 단체도 유사한 운영조직을 갖고 있지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중심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민간감시단은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한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조직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조직은 청소년, 대학생, 시민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민간감시단 조직으로, 그 하부에 8개의 유해환경감시조직을 구성하여 각 조직에 핵심회원을 중심으로 자기과제를 갖고 활동한다. 따라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발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들의 경력을 고려하여 업무에 도움을 받는다. 자원봉사자들의 자격, 근무조건, 시간, 담당분야, 인원 등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자원봉사 자격, 근무조건, 시간, 담당분야, 인원 현황

분 야	자 격	시 간	담 당 분 야	활동인원
청소년기자단	청소년기자단학교 이수자	주1회(3시간) 연 162시간	유해환경의 대안으로써 건강한 문화조성을 위한 청소년잡지 발행	20명
청소년통신원	고등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	월 8시간 (96시간)	청소년보호법 준수여부 실태조사	30명
대학생 현장모니터팀	대학YMCA회원활동	월 7시간 (84시간)	청소년보호법 준수여부 현장업소 방문 실태조사	20명
PC매체모니터팀	컴퓨터 관련학과 전공학생	월 4시간 (48시간)	국내 PC통신과 인터넷 모니터활동	10명
대학생사회봉사단	사회봉사과목을 실습하는 대학생	주3시간 연 162시간	업소방문캠페인활동 청소년보호법 실태조사	40명
청소년영상지기단	청소년영상학교을 이수한 자	주 3시간 연 162시간	영화, 비디오, TV모니터활동	15명
청소년인쇄지기단	도서대여점 운영자모임	월 6시간 (72시간)	만화, 잡지, 도서모니터활동	10명
현장업소모니터팀	모니터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	월 5시간 (60시간)	업소방문 청소년보호법 준수여부 실태조사	10명
8개 조직		연 846시간		155명

이처럼 민간감시단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춘천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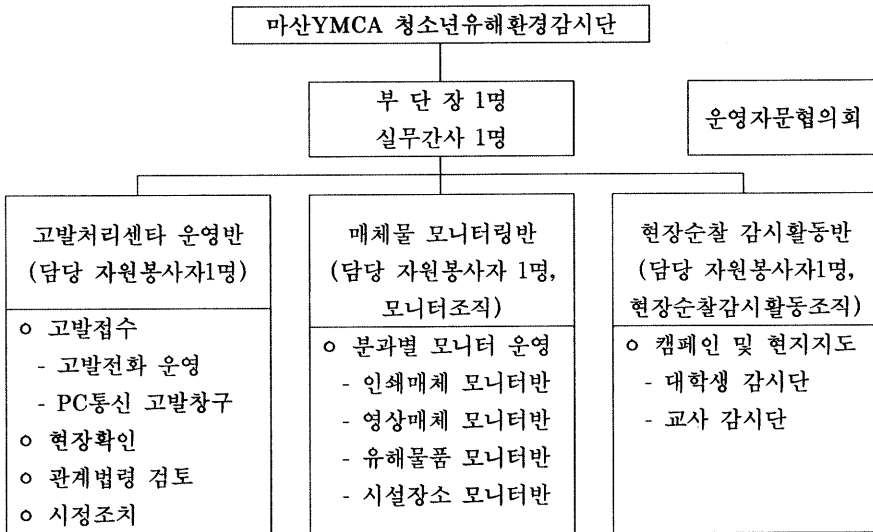
단 385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20명, 청소년 자원봉사자 103명, 기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감시단원은 춘천시내 28개 중·고등학교의 어머니회 회원들 중에서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며, 대학생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춘천YWCA 회원이나 기타 자원봉사를 원하는 학생들이고, 기타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춘천YWCA 회원 및 비회원들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형태이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감시단의 활동은 주로 3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유해환경 고발 접수·처리,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유해환경 현장 감시활동 등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원이 부족하고 민간감시단원들의 법적·제도적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시활동을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유해환경 고발 접수·처리 활동은 주로 시민들의 고발의식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유해환경 사례가 고발되어 접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주로 고발 접수된 건수를 관련 행정기관에 이첩한다. 그러나 가장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으로 관련행정 기관의 실적 요구가 가장 많다. 둘째, 유해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은 민간감시단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각 단체마다 활동 중점 부문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인쇄매체, 영상매체, 유해물품, 유해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인적 구성원은 대부분 학부모들로서 지정된 장소나 자택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부문의 활동성과는 실제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문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발한 사례를 규제·단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거나 그 결과를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유해환경 현장 감시활동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 중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문이다. 감시단원들의 신분은 대부분 공권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술집, 디스코장, 비디오방 등과 같은 유해시설을 현장 감시할 때 자연히 업주들의 반발로 활동의 효율성은 상당히 저조하다. 따라서 이 부문의 활동은 업주들의 자율적인 자정 참여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범사회적 활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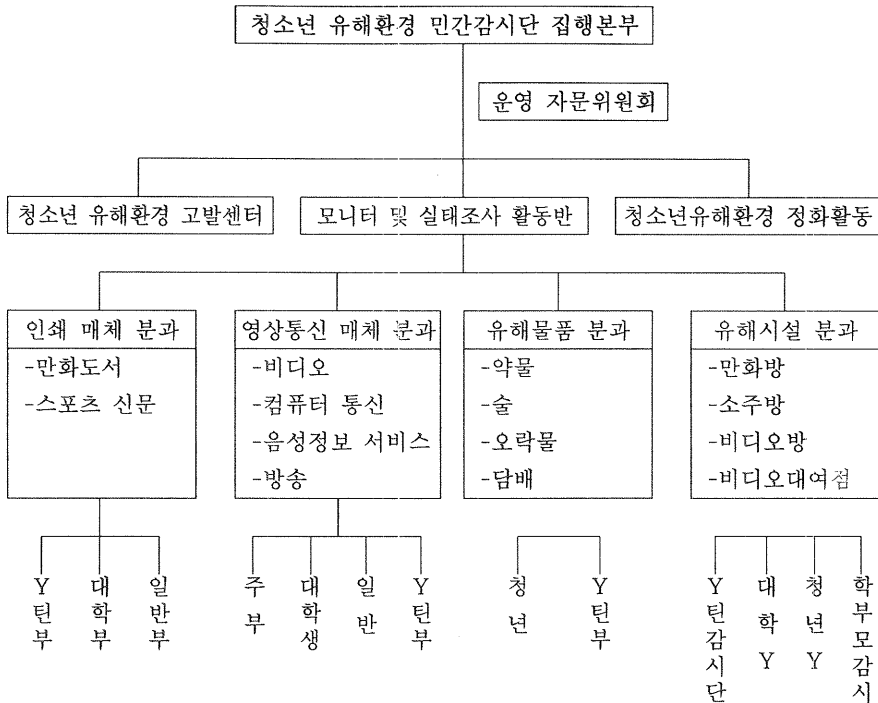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예는 다음의 <그림 3-2>과 <그림 3-3>이다.

<그림 3-2> 마산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조직



이처럼 각 민간감시단의 운영조직은 단체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용어가 달리 표현되거나 사업의 중점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조직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나,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환경 및 재정지원 상태가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단 운영조직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전주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조직



2) 재정지원 현황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재정지원은 대부분 3중 구조로 이루어진다. 청소년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와 지방비, 그리고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민자지원, 이렇게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고보조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지방비는 해당 시·도지역의 청소년관련 행정부서에서 해마다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은 인건비로 책정되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민간감시단의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감시단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운영자문협의회’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다. 결국 1개 민간감시단이 활동해야 하는 지역적 범위와 업무의 양은 과중한데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상태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감시단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놓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민간감시단 재정지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가 각각 40%, 민자지원이 20% 정도로 총 5천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97년도의 경우 국비가 총 운영예산의 50%, 지방비가 나머지 50%를 차지하였으며, 지방비는 다시 도비 25%, 시비 25%로 나누어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민간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무기기 마련 등은 민자로 충당되고 있다. 다음은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재정지원 현황이다.

〈표 3-2〉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재정지원 현황('98년기준)

(단위:원)

구 분	총 계	국 고	지 방 비	민 자
계	71,286,000	23,900,000	44,386,000	3,000,000
인 건 비	33,600,000	8,400,000	25,200,000	-
사업비(운영비)	33,400,000	15,500,000	15,900,000	2,000,000
사 무 비	4,286,000	0	3,286,000	1,000,000

또한 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국고보조, 지방비 그리고 민자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5년은 국고금과 지방비가 각각 2천5백만원이 보조되었고 민자 지원은 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운영되었다. '97년도에는 국고보조와 지방비가 각각 3천 3백만원, 민자 지원금은 자원봉사자 1인의 인건비로 약 5백여만원이 지원되었다. 감시단의 예산 사용 내역은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는 상근직원 및 보조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는 사업비에 전액 쓰여지고 있는 상태로, 설문조사 2회, 모니터 교육, 각종행사, 세미나, 자문위원회 및 간담회, 캠페인, 중.고생 금연교실, 회의비 및 문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민간감시단 재정지원은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지원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에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더욱 어렵게 한다.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결과 및 실적보고도 2중으로 해야 하고, 업무의 감독도 2중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감시단 운영의 자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실적위주의 활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실태

현재 활동 중인 민간감시단의 주요 활동사업 현황을 보면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유해환경을 줄이기 위한 감시 및 고발 활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그리고 유익한 환경 조성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1) 감시 및 고발 활동

(1) 신고, 고발센터 운영

민간감시단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전담 고발창구를 운영한다.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받는 전용전화기 개설되어 있으며 이 전화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에 관한 고발 및 문의를 받고 있다. 전용전화 말고도 FAX나 PC통신 등으로도 신고 및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고발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유해환경은 모두 접수 처리되어 관련기관이나 자문위원 등의 조언을 얻어 처리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감시단에서 직접 시정을 요구한다.

(2) 모니터 활동

모니터활동은 대표적인 감시활동으로서, 보통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감시단이 조직되어 있으며, 매체별 또는 지역별 모니터 활동을 운영한다. 이런 모니터 활동은 그 자체로서 활동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차적인 결과에 의해 더 도움을 받는다. 하나는 모니터 활동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가지며, 이 모니터 활동 결과를 통해 지역의 유해환경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교육 및 홍보 활동

(1) 지역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세미나, 보고회 등 개최

지역 내에 있는 유해환경의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유해환경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사들 또한 민간 감시단의 주요한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학교 주변의 정화 구역내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실태나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주를 대상으로 유해환경관련 내용 및 법률 이해 정도를 조사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매년 유해환경 실태의 파악을 위해 지역 내에 유해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또한 몇몇 민간 감시단에서는 지역내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를 제작하여 지역내 유해환경 정도가 어떻게 되고 그 분포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행사로는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개사곡 발표회, 유해환경 근절 포스터·표어·소논문 공모전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지역주민과 청소년 특히 유해환경 가능성이 있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 추방 전단지를 만들거나,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책갈피 및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하고, 청소년 보호법 안내전단을 유해업소에 부착시키기도 하고, 민간감시단 활동을 알리는 홍보용 전화카드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좋은 업소임을 알리는 포스터 등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3) 교육활동

교육활동은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 등의 감시단원에 대한 교육에서는 의의와 역할, 매체 모니터링의 구체적 방법이 주요 내용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스스로 각종 유해한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건전한 의식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책임감과 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의 경우는 단순히 앉아서 지역 주민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청소년들이 유해환경 접촉을 막기 위한 교육을 하거나 가출 청소년들을 위탁교육하는 등 다양한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갖고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3) 유익환경 조성 활동

유익환경 조성 활동은 민간감시단이 단순히 유해환경을 찾아서 고발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유해환경을 유익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는 포지티브적인 역할을 위한 중요한 활동 내용이다.

많은 민간감시단이 조직과 인원 및 재정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티브적인 전략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익환경 조성 활동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또는 건전한 업소지정” 활동인 듯하다. 양심판매 서명운동 등을 벌여 업주 스스로 청소년 보호에 동참하는 등의 모범적인 업소는 ‘청소년사랑업소’나 ‘청소년건전업소’로 지정하는데, 이러한 모범업소는 단순히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위급시 청소년의 피신처로도 이용될 수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장소이다.

단순히 좁은 장소로서 ‘건전업소’ 외에도 넓게 청소년의 거리 등 지역내 청소년유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시행하는 곳이 있다. 지역내에서 청소년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거리를 청소년의 거리로 선정하여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이렇게 지정되는 청소년 거리는 실제로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업소 감시는 물론 음악회, 전시회 등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3. 민간단체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문제점

1) 인원, 재정 등 구조적인 문제

우선 감시단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과중하다. 재정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인쇄매체, 영상매체, 통신매체, 유해업소, 비행우려지역,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청소년 사랑업소 배가 운동, 청소년교육, 업주 교육 등 너무나 벅차다. 따라서 보고서 중심, 실적 위주의 사업을 요구하기 보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 전문화된 활

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부분이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기구를 확대하여 최소한 각 영역별(매체별) 1인 정도의 전담실무자를 두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1-2명 정도가 모든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감시단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청소년(대학생 포함)이고 나머지 일부가 교사,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들인데 감시단 사업상 청소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좋은 업소 찾기 사업이나 모니터 활동의 경우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활동요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성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부나 교사들은 실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감시단 사업에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2)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참여의식 부족

사실상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지역 내에 있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면 지역의 시민들이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시단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공감대 형성이 결여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해환경 고발센터에 고발되는 건수는 상당히 저조한데 그것은 홍보에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동참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감시단 고발창구를 소비자 고발상담이나 전화상담과 비교해 보면 소비자 고발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홍보하지 않아도 상담하려는 욕구가 강한데 비하여,

감시단 고발창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에 관한 제보이다 보니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또한 요즘은 시민들의 관심이 지역경제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시민들의 참여부족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부모, 성인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자기 자식만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 내 자식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3) 관련 법률의 모순성 및 복잡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적용 법률은 단순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의 법이 혼재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마다 적용한 내용이 상이하여 모니터나 감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감시단이 일선의 업주들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는 일괄적이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며 유해업소 출입시 기준이 되는 위반연령의 문제였다. 다른 기관 및 단체와 합동지도 단속을 나가는 경우에 민간감시단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18세 미만이라는 규정이지만, 경찰서, 보건소 등 다른 기관의 단속 및 지도 규정은 미성년자보호법, 보건위생법 등의 20세 미만 이어서 같은 단속반끼리도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며, 업주들 역시 같은 문제로 많은 문의와 항의를 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내에서도 유해매체물 신청 경로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 신청서와 함께 30인 이상의 서명과 당해 매체물이 구비되면 관련기관으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화책을 유해매체 신청서와 30인 이상의 서명과 함께 심의를 의뢰하면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심의의뢰 1차 경로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으면 다시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전달되어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경로는 시간낭비와 함께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따라서 유해매체물 신청은 관련기관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감시단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이 더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민간 감시활동을 하는 요원 중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업무와 관련된 법조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업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각 감시단에 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예로 공연윤리심의규정, 간행물윤리심의규정, 미성년자보호법, 비디오 심의규정 등 다수의 심의규정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감시단원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4) 활동 범위의 애매성 및 관련행정관서의 협조 부족

민간감시단의 주요 목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민간 감시단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 감시단이 불법업소를 찾아내고 고발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하도록 강조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강조하게 되어 민간감시단의 본래 취지가 모호해지고 실무자의 민간감시단 운영에 관한 신념과 가치 등이 흐려져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또한 어떤 감시단에서는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그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고발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관공서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에 걸친 모니터 결과에 따라 유해업소에

대한 고발 신고를 관련 부처에 하면 업주와의 면담 결과만 가지고 통보를 하는 불성실한 태도나 합동단속시 민간인 신분이라 하여 동행을 꺼리는 등의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태도는 감시단활동에 상당히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Ⅳ.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활성화 방안

여기서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환경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유해환경 실태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감시단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크게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조직과 기능의 활성화 및 활동내용의 활성화 등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1.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와 청소년보호법 제43조에 의해서이다. 감시단의 설치 근거는 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를 운영·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은 법적 권위만을 갖고는 역부족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 의식의 개혁, 청소년들의 자주적인 운동, 유해업주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 등과 같은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 그 효과는 현실로 가시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감시단은 법적인 권위나 국가차원의 지원보다는 위에서 열거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제고를 통한 활동의 전개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민간감시단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활동 터반 마련과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활성화라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두 축은 개별적인 사안이라기 보다는 서로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어느 한쪽의 부족함이 나타나면 전체적인 균형을 잃기 쉽다.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활동 터반 강화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적

극적인 역할 제고가 가능하다면 원래 목적인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민간단체가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1) 법적 장치의 마련

본질적으로 청소년문제는 정책지향적·추상적이기 보다는 실천지향적·현실적·구체적인 지역사회의 문제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민간감시단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운영·활동 등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따라서 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충실한 터반위에서 활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법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1) 민간감시단 운영·활동과 관련된 세부 사항의 지방 조례화

현재 민간감시단의 역할은 청소년보호법 제43조에 ‘고발·감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민간감시단과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서 감시단 운영지침, 활동 범주, 예산지원, 운영기구 등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각 민간감시단이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예산배정을 승인 받으면 활동에 들어간다. 따라서 기본적인 역할에 기초하여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조례를 규정하여 특화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 청소년유해환경 지역으로 인정되는 곳의 출입 통제시간을 조례화하여 시행하거나, 민간감시단의 운영지침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례화 하거나, 유해환경지역 감시활동에 검·경찰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등의 내용을 지방조례화 하여 실행한다면 감시단 활동의 활성화에 많은 뒷받침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 의원들이 청소년의 생활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중앙 일변도의 청소년정책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전개시킬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선별적 사법권 부여

현장에서 민간감시단 활동을 하는 담당직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유해업소 등의 감시활동을 직접 수행할 때 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이다. 이러한 문제는 감시활동의 효율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 단지 계도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인 민간감시단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별하여 일정 사법권을 부여한 후 민간감시단원이 사법권을 부여받은 해당 공무원과 함께 감시·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98년 6월 청소년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업무 담당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검찰청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하는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에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 담당자 등 80명을 선정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미성년자 고용행위를 비롯해 술·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선정적인 잡지 및 만화·비디오 등 청소년관련 유해매체물의 단속을 하였다. 이것은 보다 강력한 청소년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사회차원의 의식개혁 및 자율적 정화노력과 더불어 필요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다.

(3) 청소년관련 법률의 상충내용에 대한 개정

유해환경은 생활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규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는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행위규제법 등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지만

법률간에는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있고, 유해업소와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법을 경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 미만의 경우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으로는 18세 이상이면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금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청소년들은 심야인 오전 2시까지 영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심야에도 문을 여는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유해의 정도, 연령, 시간 등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금지를 해야겠지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디오 등과 같은 것은 등급을 정해 연령과 연계해서 규제하고, 공연장이나 유흥장의 경우에는 연령과 시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이용자가 생활의 불편을 덜 느끼고, 규제를 적게하면서도 규제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일지라도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는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모두 규제할 수 만은 없다. 위성방송이나 통신을 통해서 외국에서 생산된 유해영상물이 국내에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여건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허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법과 제도로 수용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국민의 법감정과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제도적 장치의 마련

민간감시단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은 많은 관련부서의 노력과 협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각 이익단체의 반발과 사회적 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

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제도화를 통해서도 민간감시단의 활성화는 어느정도 가능하다.

(1) 유해환경의 유형별 대책 수립과 기능의 지방 분산

유해시설, 유해물품, 유해인쇄매체, 유해영상매체 등으로 구분되는 유해환경은 각 유형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성격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있더라도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해환경 유형별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오남용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가지 방안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형별로 유해환경을 판정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해환경의 범위,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해환경은 생활공간에 존재하는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는 중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유해환경 심의위원회’를 시·도와 시·군·구에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중앙의 경우 청소년 육성위원회, 시·도와 시·군·구는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산하로 설치하면 운영하기도 용이하고 그 효과도 증폭시킬 수 있다.

(2) 민간감시단 운영기구의 독립과 중앙 운영협의회 설치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각 민간단체의 부분적인 사업부서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적 조건이 민간감시단 운영에 주요

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거나 한계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감시단이 보다 독립적인 자율권을 갖고 범사회적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적 확보를 통한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청소년유해환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유기적이면서도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한편 단일업무체계를 갖추으로써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터반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에 민간감시단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업무를 특성화하여 감시단을 운영하거나, 각 지역의 감시단 운영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발전적 활동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중앙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더욱 크다.

(3) 고발·처리 절차의 다원화 및 유해매체물 신청경로의 단순화

유해환경에 대한 고발·처리절차는 대부분 민간감시단 창구로 단일화되어 있다. 일단 고발이 되면 감시단에서 접수하여 해당 기관이나 위원회 등에 제소하거나 심의·의뢰하도록 되어있는데, 청소년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등에서도 고발·접수 업무가 가능토록 창구를 다원화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의뢰 절차는 유해매체물 신청서와 함께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거쳐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관계로 민간감시단에서 바로 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 그 결과만을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하여 민간감시단 등에 전달되도록 하는 절차 축소가 필요하다. 즉, 유해매체물에 대한 판정을 심의·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간편화하여 급증하는 매체물 유통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 민간감시단 운영 요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회 부여

전국의 12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민간감시단 전담 요원은 단체별로 2~3명 내외이다. 이들은 주로 유해환경에 대한 고발접수·처리업무에서부터 감시활동까지를 전담하고 있어,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발접수·처리, 현장 감시활동 중에 법적인 자문·대응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유해환경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의 모니터 활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현재 민간감시단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위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성과와 효율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양성 연수, 전문상담원 연수 등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단위의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의 단기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제도화는 감시단 참여 인원의 저변확대나 범국민 의식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5) 권위있는 기관에서의 민간감시단원증 발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민간감시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민간감시단장이 발급하는 단원증을 발급받아 각종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시단원증을 발급하는 주체나 발급받는 객체 모두는 단원증에 대한 권위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은 실제로 유해환경을 고발·감시하는 과정에서도 유해업주들의 신분확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민간감시단원들에게 사법권은 없지만 그 활동의 정당성과 정

통성, 그리고 신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단원증 발급만이라도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민간감시단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내용은 부분적인 논의에 불과하며,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민간감시단이 운영될 지라도 생산적인 효과를 빠르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이러한 접근은 하드웨어적인 요건을 갖춘 전제하에 다음절에서 논의하는 민간감시단의 구조 및 기능 조정,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청소년 운동의 전개, 청소년을 위한 건전문화의 형성 등과 같이 활동주체의 적극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있어야 괄목할 만한 민간감시단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직과 기능의 활성화 방안

앞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정부지원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민간감시단의 이원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환경 민간감시를 위한 조직의 발전적 형태를 제시하고,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 운영의 현실적인 불가피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은 엄연한 실체가 있는 활동형태로 앞선장에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역별 민간감시단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이 ‘민간주도형 민간감시단’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전환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발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의 구조와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구조의 조정

(1) 기본방향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감시하기 위한 민간조직이다. 이같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발성, 지속성, 보완성 등의 요소가 기초적인 서비스 방향이 되어야 한다.

① 자발성

민간감시단은 자발적 조직으로서의 생명력과 신축성을 갖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비록 시민운동이 확산되기 위한 시작은 몇몇의 ‘의식있는 시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발시키지 않고서는 생산력있는 조직으로 발전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감시단은 조직과 운영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수평적 형태의 구조를 갖고 가치지향적인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② 지속성

민간감시단이 자발적 시민조직으로서 갖는 약점은 구조와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사회구조의 개선 노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자발적 시민운동의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활동의 동기를 지속화시키는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민간감시단의 조직과 기능은 참여자의 교육과 가능한 단기사업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하도록 함으

로써 과정지향적인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보완성

민간감시단 활동이 궁극적으로 제정과 운영 자립을 통한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정부의 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감시단은 조직과 기능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정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정책의 현실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 또는 시민간의 조정과 협력방안을 연계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2) 조직의 효율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감시단조직은 독립적 자율권을 갖는 범사회적 기구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 민간단체에서 실행하는 사업의 하나로써 보다는 부설기구 또는 독립사업으로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민간감시단 조직이 지역사회 시민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감시·개선한다는 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짐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활동을 지향한다는 면에서도 강조될 수 있다.

실제 각 지역민간감시단은 2~3명 내외의 유급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 유해환경의 감시 및 행정관청과의 협조, 그리고 고발 및 처리업무 등 과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많은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 조직하는 것만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민간감시단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활동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면에서 유급전담직원은 관련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적정 인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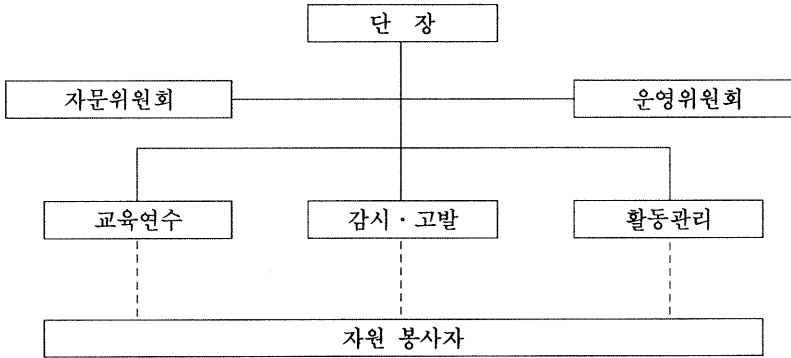
기능으로 보아 대략 5명 내외가 적절할 것이다. 실무책임자(단장) 1인과 각 영역별 담당자 1인 및 보조요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실제 민간단체의 재정과 운영의 형편을 볼 때에도 현실적인 대안도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감시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운영위원회, 유해환경개선 활동과 관련된 학계, 정책당국책임자, 시민단체인사 등이 참여하여 행정적·전략적인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된다면 더욱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실무책임자(단장) : 민간감시단 운영에 대한 총책임
- 유해환경 모니터링과 현장 감시·고발업무 : 유해매체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유해업소 등에 대한 현장감시·고발 업무 담당
-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 담당 : 유해환경 감시활동 자원봉사자의 연수와 교육담당 업무
- 지역사회 조직과 청소년활동 참여관리 담당 :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및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제반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
- 보조요원 : 업무보조

(3)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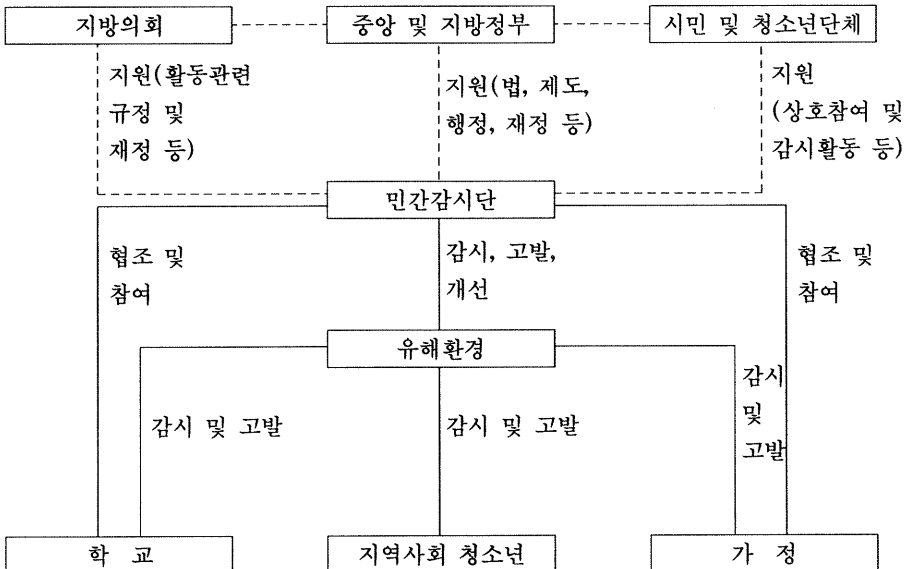
① 조직

〈그림 4-1〉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조직



② 기본 운영체계

〈그림 4-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기본 운영체계



2) 기능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참여 그리고 법·제도와 행정적 지원이 함께 역할을 담당할 때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에 대한 정확하고 심각한 인식을 갖는 지역사회와 성인,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좋은 환경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청소년의 자각, 그리고 엄격한 제도 및 행정적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같은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민간감시단은 청소년과 유해환경, 성인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유해환경과 유익환경의 규정 등 청소년과 지역사회, 성인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건전한 청소년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이끄는 기능을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운동조직으로 발전적인 전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해환경의 감시를 통한 사회적 기능의 회복이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조직과 활동은 사회통제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간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은 그 역할의 대부분을 가정과 학교에 맡기는 한편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왔다.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 가정과 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가정과 학교 밖의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직접적인 비행예방전략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제기능을 수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의 기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유해환경 감시를 통한 지역사회운동의 촉발이다.

그간 우리의 지역사회운동은 중앙조직 중심의 편중된 조직과 활동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의 현대적 개념이 뿌리

내리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지역사회운동이 체제저항적인 시민운동의 하나로서 현실정치적 성향을 배제하지 못한데서도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운동을 비롯하여 순수한 시민운동이 자리잡고 있지만 운동초기에 설정된 목표의 달성 보다는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범사회적 역할강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같은 흐름은 지역사회 중심의 범시민운동을 확산시키는 기초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방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유해업소와 지역청소년의 비행예방 등 지역사회중심의 성격이 강한 유해환경 감시활동이 지역사회운동을 촉발하는 의미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각종의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운동과 관심에 대한 각종의 사회적 자원을 조직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행동방향을 상호 조정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며, 유해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관서와의 통로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넷째, 단기적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유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해환경의 직접적인 규제나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대한 자각과 유혹에 대한 억제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유해환경의 접촉기회와 영향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간접적이지만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감시단은 단기적으로는 유해환경의 직접적인 규제와 감시

를 통해서 청소년비행예방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청소년들에게 유익환경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생활환경에 대한 성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일이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유해성을 판단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공간과 환경에 대한 성인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해환경의 정비와 개선은 청소년 유익환경조성의 간접적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민간감시단의 역할을 통해서 성인들의 청소년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관심을 촉발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의 피해자만은 아니다. 청소년은 자기들의 문화를 통해 유해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성인들의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폐해에 대해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청소년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성인과 조정하는 참여자로서의 능력을 민간감시단은 키워주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청소년이 자기의 문제를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이같은 경험은 보다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이유와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3. 활동 전략의 조직화

- ‘정부지원형 민간감시단’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검찰 등의 노력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보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의 심리, 가정, 사회적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공공부문과 민간차원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더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역할은 중요하다.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에 위반하는 탈법적인 시설과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영역밖에 놓여있는 무허가 업소와 음성적인 접촉 등 구조와 행위자체가 반사회적이고 비제도적인 환경에 있다. 유해환경의 감시와 단속은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력에 의존할 수만은 없으며, 충분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배제되어 진다면 실효성은 반감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실적이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은 수단(means)이지 목적(end)이 아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유해환경을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민간감시단과 관련된 조직, 사업, 기술은 수단이며 청소년의 복지와 성장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활동은 청소년을 위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의 하나로써 매우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조직과 기능으로 움직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역별로 중복되는 모니터활동과 전시적인 캠페인 및 유해업소 계도활동 보다는 지역사회 자치단체와 시민조직과의 연대 등을 통한 지역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시활동기반 구축과 지역주민의 교육, 지역사회운동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각종 유해환경과 관련된 청소년보호정책의 공공전달체계의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 지역별 민간감시단 활동의 연계망 구축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역적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한 환경(주로 유해매체와 물품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유해업소와 시설의 감시 활동과 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다. 이 중 지역의 유해업소와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에 대한 감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갖는 권한과 역할의 한계 및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관련 업소와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대중매체와 만화, 잡지 그리고 PC통신을 통한 음란물을 모니터하고 유해물품 및 매체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 및 유해물품의 특성상 각 지역의 모니터링 등의 활동은 동일한 부분의 중복성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대중매체프로그램과 전자매체, 그리고 각종 유해인쇄물과 유해물품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각 지역의 민간감시단 상호간의 특화된 역할분담을 통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간에 중복되는 조사와 실태를 피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국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청소년유해물품과 유해매체의 감시와 고발활동의 중복성을 피하고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는 A라는 공중과 방송매체를 다른 지역에서는 B라는 신문을 담당하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유해환경 감시실태와 경험을 나누고, 협의체 등을 만들어 자원봉사자의 교육프로그램과 감시 및 모니터 실천사례를 종합적으로 발간하고 분석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별 유해환경 민간감시협의체가 정부 및 유해관련 업소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감시전략 수립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활동은 사실상 지역적 특성이나 그 지역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밝혀진 감시단의 다양한 활동 내용과 민간감시단의 조직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감시전략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수렴된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몇가지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함께 유해환경지도(지역내 유해업소, 유해물품, 유해매체 등이 수록된)를 만든다. 청소년유해환경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해환경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유해환경도 있을 것이다. 성인들이 청소년의 관점을 이해하고 유해환경에 대해 객관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청소년집단 또는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에 관한 지도를 만들고 유해성 여부를 토의하는 과정으로부터 민간감시활동이 출발하면 그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둘째, 반상회와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감시활동 계획을 작성한다.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반상회 또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내의 부녀회를 통해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과 감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청소년건강성장을 위한 민간감시활동의 조직적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족회의를 통해서 아버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학교폭력예방과 유해환경은 법적인 제재와 청소년의 자각 그리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역할만으로 개선되기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가족환경조성과 함께 가족 모두가 지역사회에 동참함으로써 유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가정내의 아버지를 참여시킴으로써 어머니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동인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버지가 직접 유해환경 개선 및 제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유대강화 및 유해환경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동아리를 만든다.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은 청소년들 스스로 유해환경의 폐해에 대해 자각하여 접촉기회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일이 어떤 전략과 방법보다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및 청소년폭력예방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다섯째, 유해환경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녹색어머니회 활동과 같이 유해환경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사회 또는 시민들이 항상 유해환경과 폭력의 폐해와 개선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갖도록 하고,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환경조성에 유해업소 종사자와 폭력가해자 등이 항상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도록 한다.

여섯째, 청소년 유익환경 안내 정보지를 만든다(우리 지역 놀터, 놀거리, 놀이전문가). 궁극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은 유익환경의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회는 유익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차단해야 한다. 이같은 사회적 노력과 실천적 의지 그리고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유해환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일곱째, 지역사회 시민참여운동으로 발전시킨다. 유해환경 개선활동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첨예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둔 가정 대부분이 공감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의 기초적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유해환경 감시활동은 지역내의 NGO활동의 모델이 될 수 있다.

3) 청소년유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포지티브 전략

오늘날 환경의 유해성은 정보화 사회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전파된다.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술집, 유흥가 등) 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이다. 상업주의의 이익윤리를 앞세운 매스미디어는 더욱 잔인한 폭력과 선정적인 장면으로 시청자의 눈을 고정시킨다. 그속에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범죄수법과 마약 구입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된다. 여기에 더해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여과 없이 흘러드는 외설적인 사이트들은 판단력과 선택기준이 부족하고 표피적인 자극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청소년문화가 개선되는 데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거니와 단체적,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드물다 하겠다. 청소년에

의해 그들의 문화가 개선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오히려 기성세대가 청소년문화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소년문화에 대한 과제는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성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식으로 또한 청소년에 대한 성인층의 문제 제기로서 표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성사회에 의해서 청소년문화가 굴절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인사회의 상업주의적 문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인사회에 의해 유해환경이 조성·제공되고 있으며 왜곡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는 역설적이게도 시민운동으로서 바른 모습을 갖고 성장하게 되었다(임광진, 1993: 53-54).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청소년문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청소년문화 그 자체에 대한 변화 뿐 아니라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기성세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이나 여건, 매체 등이 척결되도록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차경수, 1991; 임광진, 1994: 54 재인용).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에서 청소년은 사회에서 적절히 성인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유해환경과 청소년을 분리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청소년에게서 유해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은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여기에는 청소년과 성인이 갖는 유해환경의 기준과 폐해성 등에 대한 자각과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 접촉 금지에 따른 대안적 기회의 마련과 접촉불가의 명료한 설명, 유해환경이 갖는 일탈적 속성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위치에서 유해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게 하는 동인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활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모니터모임 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단체, 학부모, 교사 등의 시민참여 없이는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의 집행이나 추진체계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활동, 또한 다양한 대중매체 모니터 모임의 조직, 대안문화운동 실험 등의 활발한 활동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가야 한다. 또한 어린이도서연구회, 영상모임 아이들, 건전 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청소년 정보감시단 등 각종 모니터 모임들을 육성해야 한다(한명섭, 1998).

이와 더불어 유해출판물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양서 등 유익출판물의 접촉기회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유익출판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건전 간행물의 제작·유통과 그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독서환경개선, 청소년독서강화운동, 양서권장사업추진 등과 같은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보다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4) 적극적인 청소년 운동으로의 전환

킹(King)교수에 의하면 사회운동은 어떤 지역이나 사건을 초월하여 사상과 행동 및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체계적 노력을 함축하고 있는 집단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King, 1956: 27). 사회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인간관계의 존재양식과 사회제도상의 변화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인간관계의 존재양식을 일정한 범주로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 사회제도이지만 그 제도는 개개인의 성격형성과 인간들의 사회관계와 그 관계에 입각

한 사회활동의 성격과 허용범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관계를 사회구조란 말로 대체한다면 사회구조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 또는 집단의 기본적 지위와 역할을 결정해 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 활동은 청소년을 한 사회의 시민으로 위치 지우는 일인 동시에 사회 안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이 사회운동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가 되는 환경이라는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건전한 성장 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씨클, 동우회, 동아리, 각종 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하여 그들의 욕구나 의견, 그리고 유해간행물과 같은 주변의 유해환경을 고발·감시하는 자율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처럼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익 신장과 주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유해간행물 추방이나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기성세대의 몫만은 아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혹은 기성세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방법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의 근본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운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가능한 청소년운동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간행물을 추방하기 위하여 고발·감시활동 등과 같은 역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자인 청소년 자신들이 유해인쇄매체와 불법출판물에 대한 고발 및 퇴

치운동을 스스로 전개해 나가는 것과 같은 활동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봉사활동 기록부재의 내용과 영역에 위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실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에게 직면한 유해간행물이나 청소년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은 현실적으로 기성세대의 몫이 아니라 차세대, 신세대, 청소년들의 몫이다. 기성세대들은 이에 대한 조작이나 이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스스로가 정보통신분야 및 가상공간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미래정보사회의 시민 도덕성은 바르게 수립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는 지역사회나 기성세대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어떤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에는 지도력 부족, 의식부족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들이 청소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가 담당해야 하고,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운동, 즉 유해간행물에 대한 모니터, 감시, 고발, 불매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넷째는 청소년 운동을 지역사회나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 토양을 확고히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매체의 선별, 활용교육을 가정 및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교육시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유해환경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의 유해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간의 계층화를 조장하고, 사회에 대한 안목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의식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유해환경을 접촉하는 수단은 돈이다. 상대적이지만 환경접촉의 상황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

게 소외감, 빈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회를 냉소적으로 보거나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아 자포자기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들이 또 다른 유해환경을 유발하는 근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자발적인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환

- ‘민간주도형 민간감시단’의 활성화 방향 모색 -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존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지만,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민간감시단활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조직화되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청소년보호와 복지의 측면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와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다른 어떤 시민운동보다도 긴요성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전략을 수립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의 청소년과 시민단체에서 운영되는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유해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참여의 매개체와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에 따른 민간감시단 조직활성화를 위한 한 예시를 기존의 사회단체 운동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천 YMCA가 시도한 담배자판기 추방운동 등 갖가지 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과 전략을 보여준다. 첫째, 청소년 보호육성은 사회적 캠페인을 동반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둘째, 청소년 보호육성은 지역화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보호육성은 정치적이고도 사법적인 개입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보호육성은 현장중심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보호육성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청소년 전문지도자의 ‘열’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육성은 청소년단체들의 시민

운동 의식을 요구한다는 것과 같은 사실적인 것들이다(한준상, 1995: 25).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운동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간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조직 등 많은 협의체나 시민운동들이 광범위한 사회활동 또는 회원 중심의 활동으로 조직되고 활동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활동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향후 민주시민사회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필요로 한다면, 청소년 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사회운동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유해환경 민간감시단활동이 시민 상호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아마도 이런 점에서라면 유해환경 민간감시단활동은 지역사회운동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각종 시민단체의 유해간행물 규제·감시 활동은 지나치게 대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의 운동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문제는 지역사회의 유해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시민단체 주도로 시민운동 차원의 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YMCA, YWCA, 각종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의해 유해간행물의 부분적인 정화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서울시내 500여 편의점을 직접 방문하여 점주들에게 청소년유해간행물을 진열·판매하지 말 것을 설득·요청하거나 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이 진정한 차원의 시민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해간행물 등의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자율 부문의 규제 노력이 체계화되어 사회적 시민운동으로 정착되고, 이를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최충욱, 1998). 첫째, 청소년 유해출판물에 대한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소비자 운동단체 등 시민운동 단체들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감시 및 고발 그리고 불매운동 등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영리추구만을 위해 유해간행물을 제작·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범국민적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해간행물의 양산은 퇴폐적인 기성세대의 부산물이기도 하므로, 유해간행물의 완전한 추방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자율 부문의 규제·감시 노력들은 대단히 비체계적이며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의 정보교환, 상호협조 등의 시민단체 연대작업이 필요하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단체들끼리는 실무적인 면에서 공동 협력하여 그 특성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사회에서는 주민 자율활동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분적으로 만화가계, 대중잡지나 서적상 등 몇몇 업계가 유해도서나 정보 및 환경의 정화를 위해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업주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 따라서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은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화가 뒷받침되면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은 지역중심의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법과 제도적 근거의 확보에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유해환경이 지방행정의 우선 순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해되기는 힘들다. 특히 지방행정의 중요한 예산책정의 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정적인 접근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하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민간감시단의 규정을 둬으로써 시민 스스로 권한과 자격을 갖춘 운동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단체에 약간의 보조금과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로 재정적 도움보다는 민간감시단의 활동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지역사회가 지키겠다는 의지와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럴 때만이 시민단체로서의 자생력을 가지며, 시민운동은 정부나 다른 기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 못지 않게 일반 시민과, 특히 시민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홍보나 언론의 계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한 교육은 국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큰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힘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면 이미 상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동기는 더욱 더 강화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시민양성을 위해서는 시민운동에의 참여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손봉호, 1992: 10).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참여한 주부자원봉사자가 강력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가장들까지 설득해 부부가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야간감시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례는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의 시민운동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유발은 민간감시단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을 지역사회 운동으로 전환해 간다면 민간감시단이 갖는 인력의 부족분 보충과 지역 주민의 관심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V.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1) 유해환경 확산배경 및 접촉실태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해환경이 확산되는 이유로 첫째는 지리적 근접성, 둘째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동료집단 등의 제도적 영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전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방출된다는 점, 셋째는 유해시설의 근접성과 유해시설로의 방출요인을 매개시켜주는 요인으로 공적 통제체제의 약화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이문화가 없다는 것, 넷째는 유해환경이 기존 제도와 문화로 부터 일탈하는데 대한 심리·사회적 구실을 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대부분의 유해환경이 폭력 및 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체와 심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한국청소년마을(대전광역시 유해환경 민간감시단)등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은 영상(37%), 물품(24%), 시설(21%), 인쇄물(18%)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동 조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의 결과는 영상(43%), 시설(22%), 인쇄물(19.2%), 물품(15.8%)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해업소를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방, 롤로스케이트장, 당구장, 노래방, 술집, 포장마차, 디스코장, 여관·여인숙, 매춘업소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그 순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출입한 곳은 노래방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90.7%가 노래방에 가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은 전자오락실로 90.4%가 응

답하였고, 만화가게 63.2%, 롤러스케이트장 62.4%, 당구장이 47.1%, 술집 35.3%, 포장마차 17.0%, 디스코장 10.3%, 여관 8.1%, 사창가 2.5%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 청소년들의 경우 유해환경의 유형을 유해물질, 유해업소, 유해매체 등으로 구분할 때, 한달 평균 술, 담배 등의 유해물질 구입을 1회 이상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의 40.1%였고, 노래방, 당구장, 디스코장, 술집 등의 유해업소 출입을 1회 이상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의 55.4%, 그리고 음란성·폭력성 서적이나 비디오 등의 구입과 관람 등의 유해매체 접촉을 한달 평균 1회 이상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의 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YWCA(강남청소년회관)조사에 따르면 1996년 기준으로 이전해야 할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서울시에만 유흥업소 16곳, 전자유키장 1천 4백 17곳, 숙박업소 1백 40곳, 만화가게 5백 52곳, 당구장 34곳, 기타 16곳 등 2천 1백 75곳에 달하고 있지만 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한 곳은 전자오락실 1백 17곳 등 모두 1백 41곳으로 이전율이 전체의 5.3%로 극히 저조한 편임.

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현황

(1) 운영조직 및 재정지원 현황

- 대부분의 민간감시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운영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과 협조를 받고 있음.
- 실제적으로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간사는 1인을 두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구성은 청소년, 주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이들의 도움과 지원은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97년도의 경우 국비가 전체 감시단 운영예산의 50%, 지방비가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방비는 다시 도비 25%, 시비 25%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음. 그리고 민간감시단 운영에 따른 기타비용은 운영기관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2) 주요 활동사업 현황

주요 활동사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신고, 고발센터 운영
- ② 모니터 활동
- ③ 세미나 및 보고회
- ④ 캠페인
- ⑤ 청소년유해환경 실태 조사사업
- ⑥ 교육활동
- ⑦ 홍보활동
- ⑧ 청소년보호 모범업소 지정사업
- ⑨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3) 활동의 문제점

활동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① 감시단 모니터 요원 확보의 어려움
- ②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의 참여의식 부족
- ③ 유해매체물 신청경로의 복잡성
- ④ 민간감시단 활동 범위의 애매성
- ⑤ 관련행정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부족
- ⑥ 청소년관련 법규의 상호 모순으로 단속과 지도규정의 혼란
- ⑦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전담직원의 법규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미비

3)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활성화 방안

(1) 법적·제도적 장치

▲ 법적 장치의 마련 :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충실한 터반 위에서 활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법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함

① 민간감시단 운영·활동과 관련된 세부 사항의 지방 조례화

현재 민간감시단의 역할은 청소년보호법 제43조에 ‘고발·감시’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의 민간감시단과 관련된 감시단 운영지침, 활동 범주, 예산지원, 운영기구 등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음.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조례를 규정하여 특화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면 감시단 활동의 활성화에 많은 뒷받침이 될 것임.

② 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선별적 사법권 부여

유해업소 등의 감시활동을 직접 수행할 때 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별하여 일정 사법권을 부여한 후 민간감시단원이 사법권을 부여받은 해당 공무원과 함께 감시·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③ 청소년관련 법률의 상충내용에 대한 개정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유해의 정도, 연령, 시간 등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유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금지를 해야겠지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디오물 등과 같은 것은 등급을 정해 연령과 연계해서 규제하고, 공연장이나 유흥장의 경우에는 연령과 시간을 연계해서 가능하면 이용자가 생활의 불편을 덜 느끼고, 규제를 적게 받으면서도 규제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제도적 장치의 마련 : 민간감시단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은 많은 관련부서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고, 이익단체의 반발과 사회적 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제도화를 통해서도 민간감시단의 활성화를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유해환경의 유형별 대책 수립과 기능의 지방 분산

유해시설, 유해물품, 유해인쇄매체, 유해영상매체 등으로 구분되는 유해환경은 각 유형마다 가지고 있는 형태와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성격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그 방안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형별로 유해환경을 판정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해환경의 범위,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함. 또한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각종 위원회는 중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유해환경 심의위원회’를 시·도와 시·군·구에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② 민간감시단 운영기구의 독립과 중앙 운영협의회 설치

민간감시단이 보다 독립적인 자율권을 갖고 범사회적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적 확보를 통한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중앙에 민간감시단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고발·처리 절차의 다원화 및 유해매체물 신청경로의 단순화

유해환경에 대한 고발·처리절차는 대부분 민간감시단 창구로 단일화 되어 있음. 일단 고발이 되면 감시단에서 접수하여 해당 기관이나 위원회 등에 제소하거나 심의·의뢰하도록 되어있는데, 청소년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등에서도 고발·접수 업무가 가능토록 창구를 다원화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의뢰 절차에 있어서도 민간감시단에서 바로 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 그 결과만을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하여 민간감시단 등에 전달되도록 하는 절차 축소가 필요함.

④ 민간감시단 운영 요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회 부여

청소년지도사 양성 연수, 전문상담원 연수 등과 같이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중앙단위의 교육이 어려울 때에는 지자체 중심의 단기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음.

⑤ 권위있는 기관에서의 민간감시단원증 발급

대부분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사법권은 없지만 그 활동의 정당성과 정통성, 그리고 신념적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단원증 발급만이라도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요구됨.

(2) 조직과 기능의 활성화

▲ 조직의 조정 :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직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감시하기 위한 민간조직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발성, 지속성, 동기유발성, 보완성 등의 요소가 기초적인 서비스 방향이 되어야 함.

② 조직의 효율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유급전담직원은 관련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적정 인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기능으로 보아 대략 실무책임자(단장) 1인과 유해환경 모니터링과 현장 감시·고발업무 담당 1인, 자원봉사자 연수 및 교육담당 1인, 지역사회조직과 청소년활동 참여관리 담당 1인 등 각 영역별 담당자 1인 및 보조요원 1인 등 5명 내외면 적당할 것임. 이와 함께 민간감시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운영위원회, 유해환경개선활동과 관련된 학계, 정책당국책임자, 시민단체인사 등이 참여하여 행정적 전략적인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된다면 더욱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기능의 활성화** :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운동조직으로 발전적인 전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첫째, 유해환경의 감시를 통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통합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해야 함. 둘째, 유해환경 감시를 통해 범시민적 지역사회운동을 촉발해야 함. 셋째,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인적, 물적, 행정적, 재정적 등 각종의 사회적 자원을 해야 함. 넷째, 단기적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유익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다섯째, 청소년생활환경과 욕구 및 요청에 대한 성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일임.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나아가 자기들의 문화를 통해 유해환경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3) 활동 전략의 조직화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각종 유해환경과 관련된 청소년보호정책의 공공전달체계의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의 활동전략을 가져야 함.

① 지역별 민간감시단 활동의 연계망 구축

지역의 유해업소와 유해환경이 아닌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대중매체 프로그램과 전자매체, 그리고 각종 유해인쇄물과 유해물품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각 지역의 민간감시단 상호간의 특화된 역할분담을 통해서 지역간에 중복되는 실태조사를 피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함. 또한 각 지역의 유해환경 감시실태와 경험을 교환하고, 협의체 등을 만들어 자원봉사자의 교육프로그램과 감시 및 모니터 실천사례를 종합적으로 발간하고 분석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별 유해환경 민간감시협의체가 정부 및 유해관련 업소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②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감시전략 수립

지역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과 함께 유해환경지도(지역내 유해업소, 유해물품, 유해매체 등이 수록된)를 만들. 둘째, 지역 반상회와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감시활동계획을 작성함. 셋째, 가족회의를 통해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가족유대강화 및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극대화

함. 넷째,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의 폐해에 대한 자각과 접촉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유해환경 감시동아리를 만들. 다섯째, 유해환경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여섯째, 지역내의 청소년들의 놀터, 놀거리, 놀이전문가 등을 망라한 청소년 유익환경 안내 정보지를 만들어 활용함. 일곱째, 지역사회 시민참여운동으로 발전시킴.

③ 청소년유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포지티브 전략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 접촉 금지에 따른 대안적 기회의 마련과 접촉 불가의 명료한 설명, 유해환경이 갖는 일탈적 속성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유익환경을 창출해야 함. 예를 들어 유익출판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건전 간행물의 제작·유통과 그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독서환경개선, 청소년독서강화운동, 양서권 장사업추진 등과 같은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보다 확대·강화되어야 함.

④ 적극적인 청소년 운동으로의 전환

유해환경의 개선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혹은 기성세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방법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의 근본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운동이 있어야만 가능함. 구체적인 가능한 청소년운동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는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간행물을 추방하기 위하여 고발·감시활동 등과 같은 역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둘째는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에게 직면한 유해간행물이나 청소년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셋째는 지역사회나 기성세대

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 넷째는 청소년 운동을 지역사회나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 토양을 확고히 하는 방안 등임.

(4) 자발적인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환

지금의 청소년과 시민단체에서 운영되는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유해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의 매개체와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자발적인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함. 이러한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운동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음. 그간 시민단체와 자원봉사 조직 등 많은 협의체나 시민운동들이 광범위한 사회활동 또는 회원중심의 활동으로 조직되고 활동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활동으로 평가하기는 힘들 것임. 향후 민주시민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필요로 한다면, 청소년 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사회운동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힘들 것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이 시민 상호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며, 이런 점에서라면 유해환경 민간감시단활동은 지역사회운동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임.

2. 정책 제언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자료와 논의에 기초하여 청소년 민간감시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은 유해환경 유형별로 지역 특화와 함께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유형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활동방안을 특화해야 한다. 유해환경의 종류에 따라서 특화하거나 조사 및 모니터링 부문을 특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유해환경 실태 그리고 자원현황 등에 적합한 유해환경활동 전략을 수립·실행함으로써 민간감시단활동의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특화전략은 전국적인 민간감시단활동이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 교환 및 모임 등을 통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더욱 공고해 질 것이기에 ‘전국 청소년유해환경 민간시단 협의회’(가칭) 등의 모임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준비로서, ‘청소년유해환경 유형별 감시체제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기초로 청소년유해환경 유형을 지역별로 분담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둘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지역사회 시민운동의 전형적인 모델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활동은 지역사회 ‘풀뿌리’에 기반을 둔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목적과 성과가 분명하도록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자발적 시민운동의 전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에서도 보듯이 감시활동 대부분의 요원

이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도 국가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민간감시단활동이 주로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및 고발과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유해환경 교육 및 대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충실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또는 제거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와 행정력을 활용한 단속과 감시 그리고 처벌의 순서에는 한계가 있다. 유해환경은 매우 은밀하고 폭넓게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며, 청소년들 또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규제의 강화 못지 않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운동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용이한 문제에 대한 한정적 목표를 갖는 시민참여운동의 전형적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유해환경 실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인식을 돕기위한 자료제작 등의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청소년환경지도 제작’과 ‘정기적인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환경지도 제작’은 지역의 복지관, 청소년회관, 도서관, 공원 등 청소년이용시설과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학교 등의 시설과 함께 전자오락실, 극장, 락카페, 편의방, 노래방, 여관 등 유해가능성이 높은 업소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여 유해환경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며 ‘정기적인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특성있는 유해환경의 실태를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유해환경 개선방안 및 감시단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현행 반상회와 부녀회 조직 등 공공 또는 사적인 지역주민회의 체를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의 주요 조직과 전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활동이 활성화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언론, 시민 등 관련되는 각종 영역과 대상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더욱 강조되는 것은 민간감시단이 시민운동으로서 기존의 시민협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각종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모임과 연계·활용하여 그러한 조직을 민간감시단의 전달체계로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자연스러운 유해환경의 폐해에 대해 교육을 하고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로서 기존의 반상회와 지역사회 부녀회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보다 명료한 활동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지침서(시민운동지침서) 등이 발간되어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활동의 목표와 전략, 전술 등을 담은 지침서가 지역사회 시민운동 전개서로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부록 2〉 참조).

넷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참여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용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동시에 함양시키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의무적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미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 의한 유해환경감시 활동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자각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기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청소년환경살핌이’ 제도인데, 이것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또는 문제청소년 그리고 자원봉사청소년 등을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동아리로 구성하여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활동을 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유익환경 조성기반을 촉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유익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적 변화매개체(change agent)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주는 시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유해환경의 감시와 개선을 위한 청소년 보호활동과 함께 각종 형태의 유해환경을 청소년 건전 공간과 매체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사회 그리고 이익단체에 촉구하는 적극적인 청소년 육성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1984).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청년연구. 7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강명구(1987). 문화종속현상으로서의 대중문화.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나남.
- 강현두 편(1989). 대중문화론. 서울: 나남.
- 강현두 편(1987).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나남.
- 강현두(1991).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나남.
- 권이종 외(1992). 청소년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학회.
- 김문조·김선업(1992). 청소년 유해업소의 존재양식과 이용실태. 청소년학회.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김준호(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길 외(1984). 한국문화에 미친 미국문화의 영향. 서울: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 김해식(1987). 한국의 대중문화.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나남.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998).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대전: (사단법인)한국청소년마을.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996).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대전: (사단법인)한국청소년마을.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995).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대전: (사단법인)한국청소년마을.
- 대한YWCA연맹(1991). 전환기 한국사회와 청소년운동. 서울: 대한YWCA연맹.
- 도종수 외(1990).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체육부.
- 박성희(1992). 청소년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3권 3호.
- 박주현(1991). 청소년유해환경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995).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보고서. 부산: 부산YWCA.
- 서울YMCA(1990). 향락문화추방 시민운동 보고서.
-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995). 종합보고서. 서울: 서울YWCA.
- 손봉호(1993). 청소년보호와 시민운동.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보호육성과 시민운동.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심포지움 자료집.
- 오치선 외(1995). 청소년 유해 영상매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 유수현(1989). 청소년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청협. 13권 4호.
- 유재천(1989). 청소년 성교육의 유해환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서울: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진외(1990). 폭력영화와 문화상업주의와 청소년 문화환경. 서울: 서울YMCA.
- 윤진·곽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강수(1980). 한국사회. 서울: 민음사.
- 이광호(1992).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시민운동과 입법화의 사례연구. 청소년 보호육성의 시민운동 사례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명숙(1989). 청소년 일상생활 공간에 관한 심리·사회적 고찰.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원복(1992). 세계의 만화. 서울: 만화의 세계.
- 이중한(1989).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 매체.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서울: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 이흥재(1996). 청소년유해매체의 유통규제와 유익매체의 육성.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광진(1993). 청소년 문화를 위한 시민운동. 청소년 보호육성과 시민운동.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심포지움 자료집.
- 임형진 외(199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방안. 서울: 체육청소년부.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장래혁(1996). 청소년유해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갑영(1994). 일본대중문화개방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정문성 외(1994).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보고서. 서울: 서울YWCA.
- 정문성(1992a). 거주환경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권 1호.
- 정문성(1992b). 일본대중문화가 한국청소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권 4호.
- 정문성·구정화(1991).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권 3호.
- 정원식(1977).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최윤진(1997). 폭력예방을 위한 강남구 청소년 환경연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 세미나(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YWCA 강남청소년회관.

- 최충옥 외(1997). 청소년의 유해간행물 접촉실태와 비행과의 관련성.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최충옥(1996). 청소년 유해 전자출판물 접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표갑수(1986). 청소년비행원인이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한준상(1991).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정책. 한국의 청소년과 교육환경. 서울: 대한 YMCA연맹 대한 YWCA연합회.
- 한준상(1993). 청소년육성과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 청소년 보호육성과 시민운동.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심포지움 자료집.
- 황정규(1987).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藤本哲也(1985). 有害環境 有害性 概念. 法律時報. 57권 7호.
- 失島正見(1987). 有害環境. 少年補導. 32권 4호.
- Aker, R. L.(1977).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Calif: Wadsworth Publishing co.
- Bandura, A. & Huston, A.(1961). *Identification as Process of Incidental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0(1), 63(2), 311-318.
- Becker, H. S.(1973). *Outsiders*. New York: The Free Press.
- Berkowitz, L.(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ist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 Brake, M.(1985). *Comparative Youth Culture*. New York.: Routledge.
- Cloward, R. A. & Ohlin, L. E.(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New York.: The Free Press.
- Cohen, A. K. (1959). *Delinquent boys*. New York.: The Free Press.
- Durkheim, E.(1951). *Suicide*. New York.: The Free Press.
- Gibbons, D. C.(1981). *Delinquent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Heusmann, L. R.(1986). *Psychological process promoting the relation between exposure to media violence and aggressive behavior by the viewer*. Journal of Social Issues, 42,

Hirschi T.(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cDonald, D(1959). *A Theory of Mass Culture*. in B. Rosenberg & M. White. *Mass culture: The Popular Arts in America*, Illinois: The Free Press.

Matza, D. and Sykes, G. M.(1961). *Juvenile delinquency and subterranean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12-719.

Merton, T. K.(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Miller, W. B.(1958). *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of gang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XIV, No 3, 5-19.

King, C. W.(1956). *Social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Random House.

Real, M. R.(1977). *Mass Mediated Culture*.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Inc.

Shaw, C. and Mckay, H. D.(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hoemaker, D. J.(1984). *Theory of delinquen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utherland, E. H. and Cressey, D. R.(1978). *Criminolog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ABSTRACT

There are sharp increases in the harmful environments that are an obstacle to a sound developments of adolescents. And there are increases the frequencies that adolescents come into contact with the harmful environments. This study is aim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activity of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that make an endeavor to decrease the harmful environments in adolescents.

Therefore, the present situations of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to the harmful environments in adolescents' were analyzed. They a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persons works in organization is two or three. The finance is supported by government subsidies. And the principle actors are volunteer.

2) The critical activities are observation, denunciation, survey, and campaign to the harmful environments in adolescents, and educations for volunteer.

The some problems of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to the harmful environments in adolescents' are as follows.

1) The manpower is not strong. And the concerns of community are not sufficient.

2) The actor and volunteer doesn't understand of the harmful environments and the related laws very well.

3) The boundaries of activities are unclear. And the helpfulnes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re not sufficient.

It requires consideration five sphere for the direc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to the harmful environments in adolescents'; the improvements of the legal devices, the promotion of the authority of the organiza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manpower, the adjustment of the function, and the enrichment of the specified activities.

Several suggestions based on the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have to establish a network with one another.

Second, the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have to become a prototype of a citizen's campaign.

Third,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have to utilize various nongovernment in community.

Forth, the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have to be participated adolescents.

Fifth, the nongover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agent to prepare beneficial environments for adolescents.

부 록

<부록 1> 유해유형별 감시단 활동방안

유해유형	방 법	활동 내용	활동 방향	관련 조직
유해 시설 및 장소	지역 중심	○ 환경지도작성 ○ 청소년보호구역지정 ○ 유해업소 계도 및 청소년선도	○ 지역사회 시민운동 ○ 청소년자발적 참여 운동	○ 지역사회조직 ○ 청소년동아리 ○ 청소년봉사조직 ○ 지역사회유형업소 협의체 등
유해 물품	지역 중심/ 중앙 협의체	○ 유해물품 추방캠페인 ○ 유해물품교육 ○ 청소년활동지역 감시	○ 유해물품 계도캠페인 ○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중독청소년 보호 및 치료 ○ 지역사회자원 활용	○ 보건복지부 ○ 행정자치부 ○ 교육부 ○ 문화관광부 ○ 법무부 ○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유해 행동	지역 중심	○ 부모교육 ○ 폭력예방교육	○ 가정과 부모교육 ○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유해행동 금지 운동 ○ 유해행동 감시단 ○ 유해행동 대처요령 및 지침서	○ 학교 ○ 가정 ○ 청소년자원봉사조직 ○ 문화관광부 ○ 보건복지부 ○ 법무부
유해매체 (TV,만 화 등 대 중매체)	지역 중심/ 지역 연계	○ TV안보기 운동 ○ 유해잡지,만화유통 실태 단속 ○ 대중매체 바로보기 운동	○ 유해출판물 불법유통 단속 ○ 유해환경 감시단 중앙협의회 구성 ○ 유해매체 모니터링 ○ 유해매체 개선 압력	○ 사회단체 ○ 언론기관 ○ 각종 윤리위원회
유해매체 (컴퓨터 게임, PC 통신 등 전자 매체)	지역 중심/ 지역 연계	○ 음란물폐기 ○ 부모 컴퓨터교육	○ 유해전자매체 불법유통 단속 ○ 전자매체이해를 위한 부모교육지침서 ○ 유해전자 매체감시 중앙 협의회 구성	○ 사회단체 ○ 각종 윤리위원회 ○ PC통신업체 ○ 정보통신부

<부록 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지침 기초(안)

○ 민간감시단의 조직

1. 목표의 명확성
2. 기관고유의 목적과 구성 및 기능
3. 민간감시단 활동에 있어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분담

○ 유해환경의 실태

1. 유해환경의 분석
 - 1) 유해환경의 성격
 - 2) 유해환경의 지역
 - 3) 유해환경의 범위 : 유해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집단
 - 4) 유해환경의 정도 :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각성
2.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과거의 노력
 - 1) 주체
 - 2) 과정
 - 3) 효과성
 - 4) 성공과 실패 여부
 - 5) 사례
3. 유해환경개선과 관련된 외적 여건
 - 1) 유해환경과 관련된 이익집단
 - 2) 유해환경과 관련된 언론 역할
 - 3) 유해환경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사들의 의견과 태도

○ 유해환경의 지역사회 맥락

1. 유해환경의 역사
2. 유해환경의 구조

- 1) 유해환경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역사회의 구조
- 2) 유해환경과 관련된 이익집단과 피해집단의 분석 및 실태

○ 지역사회 청소년

1. 지역의 크기, 지리적 여건
2.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인구학적 특성
3.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공식 기구 및 조직
4.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성향
5. 인근 지역과의 관계
6.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변화과정

○ 목표

1.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목표와 우선순위
 - 1) 민간감시단의 우선순위
 - 2) 청소년들의 우선순위
 - 3) 부모들의 우선순위
 - 4) 중요한 집단(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순위
2. 민간감시단 요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 1) 과업중심의 목표
 - 2) 과정중심의 목표

○ 전략 (strategy)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정도의 가능한 전략을 수립

1.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업 : 최소로 해야 할 일
2.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법

: 유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탐색과 상호이

해관계 설정

3. 유해환경 개선을 저항하는 세력 또는 집단의 파악과 분석
 - 1) 반대집단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예측
 - 2) 전략을 추진할 때 저항세력에 대한 대응방안
4. 민간감시단의 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대응성 및 관계직원의 능력
 - 1) 책정된 과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
 - 2)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여부 및 관계직원의 결속
과 목표 성취의 의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함
5. 선택 전략의 합리성 마련

○ 전술 (tactics)

1. 초기사업
 - 1) 시작 : 누구와 어디서 함께 일을 시작할 것인가
 - 2) 수단 : 전략을 성취할 수 있는 초기의 행동강령
2.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와 조직방법
 - 1) 유해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을
명확히 함
 - 2) 목표와 전략을 분명히 재점검
 - 3) 유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 조직, 자원에 대한 역할기대
와 분담
 - 4) 목표달성을 위한 각 조직과 자원간의 계약과 합의
3. 실천
 - 1) 민간감시단 요원에 대한 훈련과 지원
 - 2) 감시스케줄의 구성
 -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4) 행동과 반응, 재행동의 요령

5) 대응방안 논의 : 유해업소 등이 강력히 저항할 경우

○ 평 가

1. 문제해결에 있어 전략의 성공여부

2. 전술의 효과성 : 개선조치의 수정과 종결 또는 추후 사업

3. 새로운 목표, 전략 또는 전술의 설정

4. 민간감시단의 지속적 활동의 판단

* 이것은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로서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단계적인 역할과 목표성취를 위한 전략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 범주 내에서 향후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하위목표와 지역특성들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 3>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실태

1) 마산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1) 지역의 특성과 유해환경 실태

경상남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있는 마산은 창원, 진해가 인접해 있어 세 개의 도시가 한 교통권을 이루고 있지만,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세 개의 도시가 아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계획도시인 창원은 교육단지와 주거단지, 유흥밀집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도시의 특성상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고, 진해는 대부분의 학교가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마산은 오래된 도시로서 교육단지와 주거단지, 유흥밀집지역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비교적 쉽게 유해환경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예로 마산 팔용교육단지 주변에는 30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지역 바로 옆에는 윤락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본 감시단에서 1997년 6월에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초·중·고 5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주변(200m이내) 유해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점의 경우 마산 73곳, 창원 31곳, 진해 1곳으로 나타났고 숙박업소의 경우 마산 34곳, 창원 1곳, 진해 0곳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영화 포스터 부착의 경우 마산이 13곳인데 비해 진해와 창원은 학교주변에 성인영화 포스터의 부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산의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창원, 진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쉽게 마산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감시단 활동현황

① 활동사업 현황 및 내용('97. 5. 1 ~ 11. 30)

가. 신고, 고발센터 운영

- 총 고발건수 52건 중 처리 46건, 진행 및 미결 5건

나. 모니터 활동

- 생활정보 신문, PC통신 모니터 활동(82회)
- 금요 현장 모니터(3회)
- 여름방학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 활동(6회)
- PC 유해환경 모니터 활동(1회)
- 좋은 업소 찾기 모니터 활동(2회)

다. 세미나 및 보고회

- 감시단 발대식(1회)
-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방안 세미나(1회)
- 지역사회 유해환경 조사보고회(1회)
- 청소년 삶의 질 지표 만들기(1회)

라. 캠페인

- 청소년유해환경 추방 캠페인(1회)

마. 청소년유해환경 실태 조사사업

- 학교 주변 유해환경 실태조사(6회)
- 청소년 음란물 접촉 실태조사(1회)
-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주대상 조사(12회)
- 좋은 업소 찾기 실태조사(1회)

바. 교육활동

- 자원상담원 기본교육(2회)
- 청소년 모니터 클럽 기본교육(11회)
- 대학생 감시단원 교육(3회)
- 청소년보호법 교육(1회)
- 가출 청소년 위탁교육(6회)
- 주부모니터 교육(1회)

- 학교 출장교육(5회)

사. 홍보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추방 전단지(100부)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책갈피 및 스티커(8,000부)
- 청소년보호법 안내전단(10,000부)
- 홍보용 전화카드(400부)
- 청소년을 보호하는 좋은 업소 포스터(200부)

② 보유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좋은 업소 찾기

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다. 청소년 삶의 질 높이기 지표 만들기

라. 가출 청소년 위탁교육

(3) 민간감시단 활동의 중점사업

① 청소년을 보호하는 좋은 업소 찾기

1997년 7월 청소년 보호법이 실시되면서 초기에는 지역의 업주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모니터 요원이 직접 유해시설 출입 및 유해물품 구입해보는 시험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을 잘 지키는 업소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좋은 업소” 포스터를 부착하여 청소년에게 좋은 업소임을 알리는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소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건전한 업소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좋은 업소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청소년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고등학생 모니터 요원들을 유해업소 출입이나, 유해물품 구입 모니터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모니터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업소를 선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좋은 업소” 포스터를 주어도 업주들이 다른 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학생 모니터 요원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업소 찾기 모니터 사업을 해야 할 것이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좋은 업소”로 감시단이 지정한 업소에게는 그에 합당한 혜택(예를 들면 세금할인 등)을 주어 업주들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②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선정 조례청원 운동

마산의 유흥가 밀집지역인 합성동 일대에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지정하여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여관과 단란주점,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그 문제점이 언론보도에 의해 여러번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감시단은 이곳에 청소년 보호 시간대(예를 들면 오후 10:30 - 오전 5:00, 아직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를 적용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초사업으로 합성동 지도그리기,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동향조사, 미성년자 유흥주점 출입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을 자료화하여 의회에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할 계획이다.

③ 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만들기 사업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의 교사, 의사, 주부 등으로 이루어진 본 감시단 청소년 전문 위원회가 주체로 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사업이

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우리 지역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측정하는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이 사업의 기초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청소년 생활세계 이해를 위한 기초 설문조사”를 마산, 창원지역 3,000명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분석작업 중에 있다. 이후 사업으로 청소년 삶의 질 지표만들기 워크숍을 열어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표가 만들어지면 실제 우리 지역에 적용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난 후,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춘천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1) 지역의 특성과 유해환경 실태

춘천시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시 전체 인구의 약 5%정도(3,440여명)가 행정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도시이다. 그리고 춘천시에는 2개의 대학과 1개의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해마다 많은 수의 외지 학생 및 관련종사자가 춘천시로 유입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춘천시는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으로서, 중공업과 같은 2차 산업이 발달하기보다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하여 시 전체 산업분야에서 큰 비중(93.6%)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이 춘천시내 총 사업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러한 행정적, 교육적 특성 외에도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도시로서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이러한 관광적 측면을 춘천인형극제, 국제 마임페스티벌, 막국수 축제, 만화축제, 얼음축제 등의 다양한 이벤트성 문화사업들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기타 다른 문화시설을 포함한 춘천지역의 문화환경은 도내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

적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도권 및 다른 대도시의 문화적 환경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들도 이 문화복지 부문에 있어서 만족지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것(26.7%, 시민의식조사)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춘천YWCA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지역의 청소년들도 지역사회내에 마련되어 있는 문화 및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한 문화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이나 비디오 감상, 라디오 청취 등의 대중(방송)매체에 의존하고(50.9%) 있으며 전자오락(29.6%)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13.6%) 외에는 별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춘천지역의 28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시 외곽지역의 학교를 제외한 시내 15개 중·고교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지만, 강원대학 주변이나 시내중심부(명동) 및 미군부대 주변지역의 학교 등 일부지역의 학교주변 환경은 시급한 정화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2) 민간감시단 활동현황

① 활동사업 현황 및 내용

춘천시 민간감시단의 활동 사업은 상설고발창구 운영, 유해환경 감시 및 매체모니터, 유해환경 자율정화활동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전담 고발창구 운영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받는 전용전화(전화번호 0361-54-6888)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전화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에 관한 고발 및 문의를 받고 있다. 이 전용전화 말고도 FAX(0361-55-7744)와 PC통신(하이텔 chchywca, 춘천YWCA 사무용 ID) 등으로도 신고 및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이 고발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유해환경에 대한 고발은 모두 접수 처리되어 관련기

관이나 자문위원 등의 조언을 얻어 처리되거나 관련부처로 이첩되고, 또는 감시단에서 직접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과 매체별 모니터 활동, 실태조사 활동 등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하고 있다. 감시활동으로는 각 지역별로 어머니 감시단이 조직되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매체별 모니터 활동은 대학생 모니터회와 청소년 모니터회로 구성이 되어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춘천시 민간감시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기간이 짧은 관계로 심도있는 모니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모니터 활동에 참가한 춘천시 민간감시단의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는데는 실효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조사 활동으로는 '97년 상반기 춘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유해환경 실태조사 등이 있었고, 또한 민관이 함께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지도 단속반으로 구성되어 '9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지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춘천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환경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주요 프로그램 내용

민간감시단은 '97년 처음으로 감시단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97년에는 감시단 기구조직, 감시단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설고발창구 운영, 인쇄·영상매체 모니터 활동,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청소년 대상),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소논문 공모, 청소년유해환경 포럼,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거리축제, 청소년 보호법 홍보물 제작 등 가장 기초적으로 유해환경 감시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을 중점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들 '97년에 전개한 감시단 사업 중에서 '98년에도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춘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특성화하여 운영해 볼 계획이다.

(3) 민간감시단 활동의 중점사업

'97년 한 해 동안의 춘천 민간감시단의 중점 사업은 춘천지역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기타 다른 청소년 단체와 달리 특성화되어 자리를 잡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것과 감시단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춘천 지역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에 활동의 주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춘천지역에 있는 다른 청소년 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청소년들 개인의 인성교육이나, 지도력 훈련, 자체 문화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 상담활동 등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었고, 가장 최근에 춘천YMCA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청소년유해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본 유해환경 감시단처럼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춘천 유해환경 감시단은 춘천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있다는 것, 유해환경 감시단이 어떤 활동을 하며, 춘천 지역의 청소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여 도움을 줄 것 인지와 그 효과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 그리고 기타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맺어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감시단 활동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춘천시내 각 중·고등학교 어머니회 회원들을 민간감시단원으로 이끌어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 즉 자신들과 가장 근접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친숙한 지역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니터교육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감시단 발대식 이전은 물론이고, 각 감시단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활동 정보를 알려

중으로써 감시단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보다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발효에 맞춰 청소년보호법과 그 처벌규정에 관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보내 주었고, 기타 자료집이 발간되었을 때마다 발송하여 감시단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현장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사업에 대한 협조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잡무가 많이 주어지는 관계로 관련 행정처의 도움이 없이는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얻을 수 없어 안타까운 점이 많다.

춘천 민간감시단이 '97년도에 주력한 또 하나의 중점사업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다. 우선 '97년 8월 춘천시내 청소년 900여명을 대상으로 춘천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의 형태, 유해환경에 접촉 실태, 청소년문화 공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 포럼을 개최하여 춘천시내 유해환경 실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들이 변화시켜야 할 유해환경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소논문을 공모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직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외에도 10월에는 중·고등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내의 청소년유해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97년에는 일단 이러한 지역내의 실태파악 정도에 그쳤으나, '98년도에는 이들 조사된 지역 중 한 군데를 선정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의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는 감시단 활동의 목적이 단순한 조사활동에 그치기보다 좀더 능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몽중심의 활동과 조사와 감시활동 외에도 춘천 민간감시단은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 찾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12월에 실시한 청소년 거리축제가 그 예이며, 청소년들이 흥겹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

기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 역시 민간 감시단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춘천에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으로 청소년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그리 많지 않다. 그 어떠한 다른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과 감시와 규제만이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춘천 민간감시단은 규제와 대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98년에도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강화하여 감시단 사업을 전개시킬 계획이다.

3) 전주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1) 지역의 특성과 유해환경 실태

대표적인 농도이며 지역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에서 전주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자리하고 있는 전주시는 교육의 도시이며 소비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분류된다.

전주시는 대표적인 교육도시로서 주변 소도시에서의 이른바 청소년 유학생의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곳이다.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가족집단으로부터의 이탈과 공동체성의 상실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유분방하고 무원칙한 생활과 행동양식에 노출되기 쉽고, 또한 일부는 소집단에서의 자기 지위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비행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한다. 집을 떠나 홀로 유학하는 이들 청소년들의 주거지의 일부(자취방, 하숙집)는 비행의 좋은 온상지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도시는 문화적 요구가 높은 문화시민을 양산하고 있지만 현재의 실정은 이들의 문화적 요구를 채워줄 구조와 기능은 부족하기만 하다. 이는 이들로 하여금 다른 출구, 곧 음성적인 문화에 빠져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만화방, 비디오방, 당구장의 번창은 이를 잘 말해준다.

소비도시는 사회구조적으로 3차 산업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특히 휴게, 일반, 유흥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종은 기형적으로 비대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대화된 서비스업 등은 부족한 인력부문에 청소년들을 유입시켜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소년들이 비대화된 서비스업종의 종사자, 공급원이 되고 있는 것이며 곳곳에서 돈과 유흥이라는 매개로 유혹당하고 있으며 또한, 기성세대의 소비행태를 직·간접적으로 학습하는 청소년들의 가치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2) 민간감시단 활동현황 및 중점사업

① 매체 모니터 운영

- 인쇄매체 모니터 : 주부모니터 5명, 어린이 만화 모니터 11명
- 영상매체 모니터 : 주부 TV 모니터 5명, 대학생 비디오 모니터 5명
- 통신매체 모니터 : 대학생 5명
- 유해시설 모니터 : 업소 모니터 대학생 6명, 비행 우범지역 모니터 7명, 청소년 모니터 7명

② 중·고등학교 특별활동지도

전주 YWCA는 Y-틴이라는 중·고등학교 조직이 있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시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지도를 한다. 그 내용 중에 유해업소 조사, 유해환경지도 그리기, 불법 구인 광고물 제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의식을 높인다. 97년도에는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계속적으로 Y-틴이 각 학교에 조직되면서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③ 청소년 사회봉사활동 지도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조사하고 토론을 함으로

써 건전한 비판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주변 유해업소 조사와 환경지도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④ 청소년 사랑업소 배가 운동

계속적인 유해업소 감시와 함께 양심판매 서명운동을 벌여 업주 스스로 청소년 보호에 동참하게 하고 모범적인 업소는 '청소년 사랑업소'로 지정한다. 청소년 사랑업소는 모범업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위급시 청소년의 피신처로도 이용된다. 현재 청소년 사랑업소로 2곳이(약국, 제과점) 지정되어 있다.

⑤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청소년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객사거리'를 청소년의 거리로 선정하여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전주시와 함께 선포한 청소년의 거리는 실제로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업소 감시는 물론 음악회, 전시회 등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⑥ 고발센터 운영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매체 및 업소에 대한 고발 센터를 운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97년도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고 실제 고발 건수는 30여건에 이르렀다. 사안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⑦ 교 육

감시단원에 대한 교육사업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업주에 대한 교육으로 나뉘어진다. 감시단원에 대해서는 의의와 역할, 매체 모니터링의 구체적 방법이 주요 내용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스스로 각종

유해한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건전한 의식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책임감과 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입시를 끝마친 중 3, 고 3을 위한 수험생 교육은 자칫 유해업소에 이끌리기 쉬운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4)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1) 민간감시단 활동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광주지역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광주YMCA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에서 후원하여 1995년 4월에 발족한 이후 4년째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활동사업은 크게 광주광역시의 유해환경 지표로서의 6개 지표사업과 청소년보호법 적용업소에 보호법 적용항목을 알리기 위한 방문캠페인 사업, 청소년유해환경을 견인해 나가는 건강한 청소년문화운동, 조직사업, 토론회 및 강좌개설 교육사업, 유해환경전시회 등 7개의 사업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프로그램은 총 27개 이다.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사업 현황 및 내용

사업분야	사업내용
□ 광주지역 청소년유해환경 6개 지표사업	1. 청소년보호법 적용업소 준수여부 실태조사 2. 청소년유해물품 유통실태조사 3. 학교주변절대 · 상대정화구역실태조사 4. 주요유흥지역 청소년이용실태조사 5. 학교폭력 실태조사 6. 도서대여점 실태조사 7.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설문조사 8. 폭력 · 선정적 인쇄 · 영상 · pc매체 모니터활동
□ 청소년보호법 적용업소방 문 보호법 적용항목 알리기	9. 청소년보호법 적용항목 홍보활동 10. 청소년보호법준수를다짐하는업소 운영자 서명활동 11. 청소년통신원을 통한 적용업소방문 활동
□ 청소년유해업소, 환경신고 센터운영	12. TEL - 062-234-0112 13. PC통신 천리안 ID K2340075 하이텔 ID 2340075
□ 청소년유해환경을 추방 하는 건전 청소년 문화활동	14. 청소년 농구대회 15. 유해환경근절을 위한 논술대회 16. 청소년평화가요제, 댄싱축제 17. 청소년만화제, 영화제, 통신제 18. 청소년잡지 발간
□ 청소년을 돕는 자원봉사자조직	19. 시민조직-영상지기단, 인쇄지기단, 현장감시단 20. 대학생조직-현장감시단, 사회봉사단, PC모니터 21. 청소년조직-청소년기자단, 통신원
□ 청소년유해환경 교육활동	22. 청소년유해환경시민학교 23. 청소년을 위한 영상문화학교 24. 청소년문화아카데미 25.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토론회
□ 청소년유해물품 및 매체 전시회	26. 금남로일대 전시회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주요프로그램('97년 기준)

번 호	사 업 명	실시횟수
1	청소년유해환경시민학교	1회
2	시민을 위한 영상문화학교	1회
3	청소년 비디오 접촉실태조사	1회
4	청소년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모니터 활동	1회
5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는 업소의 보호법 준수실태조사	10회
6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역의 역할 토론회	1회
7	KBC(광주방송) 프로그램 모니터	2회
8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업소의 적용항목알리기 홍보활동	4회
9	도서대여점의 청소년보호법 준수여부 실태조사	4회
10	청소년 유해물품 유통실태조사	4회
11	청소년이 직접 구입한 청소년 유해물품전시회	1회
12	실태조사 분석결과 기자회견	1회
13	〈청소년 영상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1회
14	청소에게 원하는 비디오50선 발간	1회
15	학교주변 절대·상대정화구역 실태조사	3회
16	학교폭력 지도그리기	2회
17	방송3사 광고모니터활동	1회
18	영상기지단 활동자료모음	1회
19	청소년유해업소, 환경신고센터운영	년중
20	청소년농구대회	3회
21	유해환경근절을 위한 논술대회	1회
22	청소년평화가요제, 댄싱축제	1회
23	청소년만화제, 영화제, 통신제	1회
24	청소년잡지 발간	4회
25	청소년문화아카데미	3회
26	청소년기자단	년중
27	청소년통신원	년중

(2) 민간감시단 중점사업

① 광주지역 청소년유해환경 6개 지표활동

민간감시단의 중점 추진사업은 광주지역 청소년유해환경의 6개 오염 지표활동으로 97년 유해환경 오염지수는 50.7%로 나타났다.

이 활동의 추진 이유는 유해환경감시활동이 일과성 사업 또는 조사활동만으로 끝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활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98년도 목표는 오염지수를 40%대로 떨어뜨리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진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목적성 주요추진 사업

번호	조 사 분 야	조 사 대 상	업소수	준수비율	오염지수	활동일시
1	청소년보호법 준수여부실태조사	5개구 1,716업소	840	49%	51%	매월1회
2	청소년유해물품(술·담배·본드·부탄가스) 유통 실태조사	5개구 163개업소	86	53%	47%	격월1회
3	학교주변 절대·상대 정화구역 실태조사	5개구 45개업소	45	45%	55%	격월1회
4	주요 유흥지역 청소년 이용실태조사	5개구 80개업소	30	38%	62%	매월1회
5	학교폭력 실태조사	5개구 25개업소	15	62%	38%	격월1회
6	도서대여점 실태조사	5개구 100개업소	49	49%	51%	격월1회
계	6개분야	5개구 2,104개업소 25개 학교	1065	49.3%	50.7%	

② 광주지역 선정적·폭력적 영화포스터 제한 조례제정 활동

'96과 '97년의 유해환경 조사활동 분야의 하나로 학교주변 절대·상대 지역과 등학교길에 설치 되어 있는 영화포스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정적·폭력적 영화포스터가 아무런 제한없이 부착되어 있어 학교주변 영화포스터 게시판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선거 후인 98년 7월부터 추진하도록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시민조직으로「시민 30인의 모임」을 조직하고 있으며, 준비 중 애로사항은 상위법과의 법률적 판단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조례의 선례가 없다는 점이다.

5) 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1) 지역의 특성과 유해환경 실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방향과 그 형태는 지역의 정서나 분위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청소년들이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 시설을 '97년 대구시청 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소년단체 총 12개, 상담기관 23개, 청소년 수련원을 비롯한 청소년 수련시설 16개 정도가 있다. 여기에는 주로 청소년 수련원 1곳, 수련관 2곳, 수련실 10곳, 야영장 1곳, 수련장 1곳, 놀이마당 1곳 정도이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출입하기에는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곳에 있어 청소년들의 이용이 어렵다. 수련실의 경우 내부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된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외의 주요 청소년 이용 시설 현황을 보면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7개의 시설이 있다.

반면에 대구지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주에 속하는 것 중 자료화된 음식, 숙박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를 인천, 광주와 비교했을 때 사업체수의 경우 대구가 23,755개에 56,000명이 종사하는 것에 비해 인천의 경우는 18,320개에 46,000명, 광주의 경우는 10,680개에 28,000명으로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천리안 자료 인용).

특히 매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국의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TV의 경우는 KBS, MBC, TBC가 지역방송을 하고 있고, 이를 지역방송의 자체 local 방송제작 후 방영하는 경우 가족시청 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 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뉴스, 시사, 르포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드라마, 퀴즈에서는 간간히 보인다. 그외 지역 radio program 등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

인쇄매체의 경우도 전국이 같은 경로로 도서 및 신문이 보급되어지나 지역의 정보지의 경우 구인광고, 700 전화사서함, 기타 광고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보인다.

유해시설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동성로 일대에는 레스토랑, 커피숍, 호프집, 가요방, 극장, 락카페, 당구장, 분식점, 오락실 등이 밀집되어 있다. 대구지역의 청소년들이라면 동성로에서 한 두번 친구를 만나보지 않은 학생이 드물 정도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모든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성인들도 대부분 약속장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대구시민의 이용률이 가장 많은 곳이며 명실공히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대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대구시내에 있는 대학교 주변으로, 특히 경남대 일대와 계명대 일대가 그러한데, 그 중 계명대 일대의 경우에 19번 도로 또는 양지로라고 불리는 곳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 지역 일대에는 중·고등학교도 많아 얼마 전 지역 구청에서의 대대적인 폐업처리 작업도 있었다. 그러나 폐업처리 이후 유흥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또다시 영업을 하고 있어 악순환은 계속 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양교 주위의 13번 도로, 대구역 근처의 자갈마당, 동대구역 근처의 여관거리, 미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봉덕동 일대 등 몇 몇 곳이 유흥업소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출입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 지역의 청소년 특성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을 몇가지 자료를 통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역의 청소년 비율은 지역 인구수에 비례하여 13.5% 정도이고, 유해환경 및 흡연·음주·약물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

구지역 초.중.고등학생 4,445명 중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다’는 학생은 3,590명(80.8%)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피운 적이 있지만 현재는 안 피운다’는 응답이 479명(10.8%), ‘현재 피우고 있다’가 376명(8.5%)으로 나타나, 담배를 한 번이라도 피운 적이 있는 청소년이 855명(19.2%)이나 되는 것을 나타나 상당수의 청소년이 흡연의 경험이 있고, 또한 담배구입도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흡연을 시작한 시기는 주로 중 3이 121명(32.2%) 가장 많았으며, 흡연 시작동기를 살펴보면 흡연학생 376명 중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162명(43.1%)이었고, 다음이 ‘친구·선배 권유’의 응답이 89명(23.7%),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67명(17.8%), ‘멋있게 보여서’ 20명(5.3%), ‘가족이 흡연하므로’ 4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배 구입장소로는 321명(85.4%)이 가게에서 구입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친구를 통해서’가 29명(7.7%), ‘자판기에서 구입’이 11명(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을 때인 97년 10월 말부터 11월경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범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동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술을 마신다는 청소년 1,101명 가운데 ‘친구·선배 권유’가 378명(34.3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195명(17.7%), ‘호기심으로’ 190명(17.3%), ‘가족이 마시니까’ 54명(4.9%), ‘친구·선배의 협박 강요에 의해서’가 14명(1.3%), ‘TV나 영화에서 멋있게 보여서’ 12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장소로는 ‘업소에서’ 마신다는 응답이 441명(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마시게도 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술을 구입하는 장소로는 ‘동네수퍼’가 597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주방’ 272명(24.7%), ‘편의점’ 104명(9.4%), ‘레스토랑’ 40명(3.6%), ‘비디오방’, ‘가

요방' 등이 각각 2명(0.2%)씩을 차지했다.

약물 사용동기로는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총28명 중 11명(39.3%)이 '호기심 때문'으로 응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각각 3명(10.7%), '친구·선배권유'가 2명(7.1%), '광고·선전을 보고'가 1명(3.6%)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 장소로는 '집에서'가 14명(50.0%)이었고 다음이 '학교'와 '놀이터'로 각각 4명(14.3%), '숙박시설'이 1명(3.6%)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내의 남구와 중구의 각 중·고등학교의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내의 여러 업소를 모니터링하여 살펴본 학교주변 실태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남구와 중구의 중·고등학교 주변에 가장 많은 업소는 본 조사대상 업소 총1,230개 중 '분식/식당'이 299개소(24.3%)로 나타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호프/주점'이 230개소(8.7%), '서점/문구'가 123개소(10%), '당구장' 100개소(8.1%), '커피숍'이 71개소(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놀이 공간으로 '오락실' 57개소(4.6%), '레스토랑' 54개소(4.4%), '노래방' 47개소(3.8%), '숙박업소'가 40개소(3.2%)인 것으로 나타났다(1996. 6. 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간, 학교주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남구와 중구 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정화구역 중심으로) 참고).

(3) 민간감시단 활동 현황

① 활동사업 현황 및 내용('97년 사업 중심으로)

먼저 실태조사 사업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조사, 청소년 약물 복용 조사, 유해업소 조사활동, 청소년 보호법 계도·홍보사업 등이 있었으며 모니터 교육 및 활동으로는 총괄적 교육이 연 1회 정도 있었고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모임형식은 청소년, 대학, 일반인이 영상, 인쇄, 업소 순찰 등의 모니터활동을 매주, 격주로 실시하였다. 시민들이 동참하는 유해환경 정화운동으로는 유해물 전시 및 소각의 날과 상설고발 창구

를 운영하였으며, 세미나 및 각종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 세미나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업주 간담회, 업주 모니터링 모임 자문 위원회 등을 운영하였다. 청소년들을 통한 유해환경 정화운동으로는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개사곡 발표회, 유해환경 근절 포스터·표어·소논문 공모전 및 청소년 우리들의 무대를 비롯한 각종 캠페인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학교 순회 교육으로 금연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주요 프로그램

현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유해물 전시 및 소각의 날과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포스터·표어·소논문 공모전과 청소년 우리들의 무대를 통한 지역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 및 금연교육 등이 있다.

(4) 민간감시단 활동의 중점사업

청소년 아르바이트 조사, 청소년 약물 복용 조사, 유해업소 조사활동, 청소년 보호법 계도·홍보사업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교육 및 활동을 위한 총괄적 교육을 연 1회 정도 실시하며, 수시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동참하는 유해환경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유해물 전시 및 소각의 날과 상설고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및 보고회와 업주 간담회, 업주 모니터링 모임 자문 위원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통한 유해환경 정화운동으로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개사곡 발표회와 표어·소논문 공모전 및 청소년 우리들의 무대를 비롯한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 순회 교육으로 금연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한다.

연도별로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대부분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어 지역의 매체, 시설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간담회, 캠페인을 통해 민간 감시단 활동 홍보 및 문제의식 제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모니터를 모집하여 청소년유해시설에 대한 영상, 인쇄매체 모니터를 하도록 하였다. 시민들의 동참없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정화·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초기의 감시단은 문제제기 및 홍보에 주력하였다.

1996년도의 중점사업으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구지역의 남구와 중구의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외에 청소년의 범주에 드는 어린이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만화에 대한 깊이있는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 이후 좋은 만화, 나쁜 만화 비교 전시회 및 만화감상문 선발·시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매체 예방교육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외 유해물질 소각의 날과 포스터·표어·소논문 공모전을 통해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들에게도 감시단의 활동과 그 필요성을 알려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1997년도에는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미나, 실태조사 등에 계속적으로 중점을 두며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활동에 대한 요구의 일환으로 시설 실태파악을 위해 시설단속 등을 실시해 보았으나, 행정력이 없는 민간감시단으로서 지속적인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하반기에는 경찰, 시·구 공무원, 교육청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설감시활동의 필요성이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부정적 사업보다는 긍정적 사업이 필요하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금연교실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개사곡 발표회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연구보고서 ◆

정 책 연 구

- 98-01 천정웅 · 김정주 · 김영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체계 연구」
- 98-02 김정주 · 천정웅 · 김영지 「지역청소년센터 운영모델 연구」
- 98-04 노 혁 · 길은배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 98-05 이민희 · 이명숙 · 정희옥 · 이춘화 「청소년폭력대책 모델개발」
- 98-06 이민희 · 이명숙 · 정희옥 · 이춘화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 98-07 고성혜 · 맹영임 · 신선미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98-08 전명기 · 김영한 · 박창남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 98-09 황진구 · 임지수 「청소년 정보 분류 · 검색체계 개발 연구」
- 98-13 김정배 · 정화수 · 서수자 「청소년 자원봉사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98-14 윤철경 · 박영균 · 정화수 · 서수자 「중 · 고등학교 봉사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 98-16 정희옥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 98-17 이종원 「일본 청소년 이시메의 실태와 대책」
- 98-18 이종원 「일본 청소년육성의 현실과 대응방안」
- 98-19 이수봉 「중국의 청소년 조직과 활동」

청소년정보자료

- 98-10 김혁진 「청소년정보 길라잡이」
- 98-11 황진구 「인터넷에서 청소년 정보 찾기」
- 98-12 이해연 「청소년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나」

프로그램 개발

- 98-15 김정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모음집」
- 98-21 고성혜 · 맹영임 「자연권 청소년 수련거리 백과」(CD-Rom 별도)
- 98-03 천정웅 · 김정주 · 김영지 「청소년정책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4회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보고서)

◆ 학술행사 및 세미나 자료집 ◆

- 98-S01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역별 관계자 워크숍 (1998. 6)
- 98-S02 「국가 경제위기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1998. 6 문화관광부 · 중앙일보사 후원)
- 98-S03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1998. 6)
- 98-S04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청소년 관련기관 및 전문가 정책협의회 자료 (1998. 7)
- 98-S05 「학생봉사활동 지도교사 일반 연수」연수교재 (1998. 7)
- 98-S06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요약 · 설명자료」(1998. 8)
- 98-S07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참여 - 청소년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 (1998. 8)
- 98-S08 「청소년 자율참여와 미래」1998년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교재 (1998. 9)
- 98-S09 「새로운 청소년 현장을 위한 공청회」청소년의 권리 · 청소년의 책임 · 사회의 역할 (1998. 9 문화관광부 공동주최)
- 98-S10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 - 한 · 중 · 일 국제심포지움」(1998. 9)
- 98-S11 「지역중심 청소년정책의 실천 방안과 과제」새로운 청소년정책 과제의 실천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세미나 (1998. 10. '98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세미나 준비위원회)

◆ 학술논문집 ◆

- 『한국청소년연구』1998년 제9권 제1호(통권 제27호)
- 『한국청소년연구』1998년 제9권 제2호(통권 제28호)

◆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론 / 인간관계수련활동 / 전통문화활동 /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 청소년활동론 / 집단지도론 /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과 지역사회 / 청소년 기관운영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자문 및 협력진

구정화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우옥환 한국청소년마을 이사장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정문성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정하희 서울 YWCA 강남청소년회관 관장

● 연구협력단체

마산 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춘천 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대구 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전주 YW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광주 YMCA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연구보고서 98-04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1998년 12월 23일
발	행	1998년 12월 28일
발	행	인
발	행	최 충 옥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1137-715
등	록	1993.10.23 제 21-500호
인	쇄	처
		고 려 문 화 사
		전화 2277-1509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578-7924(자료실)

ISBN:89-7816-192-8

